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 방안

김 중 표

2003. 12



차 례

요약 i ~ X

제1장 들어가면서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5

3. 연구의 구성5

제2장 향토유실수종의 개요와 생산 현황9

제1절 향토유실수의 개념과 특성9

1. 향토와 향토유실수9

2. 향토유실수의 특성10

제2절 향토유실수의 수종 분류와 재배 동향11

1. 향토유실수종의 분류11

2. 수종별 특성과 재배 동향12

제3절 지역별 향토유실수종 생산 현황22

1. 재배수종22

2. 일반수종23

3. 약용수종25

4. 수액수종26

5. 기타 수종27



제3장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 실태와 사례	33
제1절 브랜드란	33
1. 브랜드의 정의	33
2. 브랜드의 기능과 구성요소	34
제2절 지역브랜드화와 지역개발	35
1. 지역브랜드화의 의미	35
2. 지역브랜드의 필요성	36
3. 지역브랜드와 지역 경쟁력	36
제3절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 활용 실태	37
1. 향토유실수종의 시·군 상징물 활용	37
2. 향토유실수종의 농특산물 지정 실태	41
3. 향토유실수종의 축제·이벤트 및 향토음식 활용	43
제4절 향토유실수종의 브랜드화 사례와 시사점	46
1. 국내 사례	46
2. 외국 사례	48
3.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에 대한 시사점	49
 제4장 향토유실수종의 선정	 53
제1절 향토유실수종 선정 기준과 지표	53
1. 선정 기준	53
2. 분석 지표	53
제2절 시·군별 향토유실수종 선정 분석	54



제5장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 방안	71
제1절 지역브랜드화를 위한 기본전략	71
제2절 지역브랜드화의 추진 방향	71
1. 향토유실수종 선정 및 발굴	71
2. 향토유실수종의 보급 확대	72
3. 향토유실수종의 관광자원화	74
4. 향토지적재산화 및 종(種)의 보존	75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79
■ 참고문헌	81
■ 부록 1 : 표목차·그림목차	85
■ 부록 2 : 지역별 상징물	91

요약

제1장 들어가면서

- 열악한 농촌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며, 농촌인구의 노령화를 감안하여 노인 및 부녀자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적정 작목 및 대표 품목을 향토유실수종 선정할 필요
- 농촌 체험관광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킴. 특히, 주5일 근무제의 실시, 체험·학습 중심의 관광 및 여가선용 행태 변화에 부응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
- 이 연구는 지역의 향토유실수종을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 시·군별 대표적인 향토유실수종을 선정하고, 그 활용방향과 지역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제2장 향토 유실수종의 개요와 생산 현황

1. 향토와 향토유실수

- 향토(郷土)란 지역사회가 출생지·현주소 등의 계기에 의하여 개인이나 인간 집단과 특수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형성되는 사회 개념임. 경우에 따라 자기가 태어난 곳, 조상들이 생활한 곳, 소년시절을 보낸 곳 등의 의미로 쓰여 약간은 막연한 개념이지만, 요컨대 일정한 지역으로서 오랫동안 생활하던 곳을 말함. 향토는 사람들이 생활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갖는 지역사회로써, 그 지역적 범위는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부락이나 마을, 읍·시,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등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음.
- 유실수(有實樹)란 과일생산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를 말함. 즉, 과일나무

를 말하는데 임업에서는 이것을 유실수라고 함.

- 향토유실수종(郷土有實樹種)이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일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생하거나 많이 식재 되어 있는 과실이 열리는 나무를 말함.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밤, 은행, 잣, 감 등의 과일나무가 이에 해당됨.

2. 향토유실수종의 특성

- 향토유실수종은 경제성, 야생성, 약용성, 지역대표성, 친근성 등의 특성을 지님.
- 향토유실수는 대부분 생산량이 적어 해당 작물에 대하여 특화를 시킨다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음(경제성). 수종의 희소성이 높아 농가 소득 작물로 개발할 경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향토유실수종 중 농가에서 집단적으로 재배되는 수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종은 산과 들에 자생함(야생성)
- 대추, 잣, 감, 은행, 산수유, 오미자 등의 수종은 그 열매를 이용한 한방의 원료로 이용되거나 옛날부터 전해오는 민간요법으로 널리 애용되어 왔음(약용성).
- 향토유실수종은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였음. 오래 전부터 특정지역에 많이 생산되고 상품성이 뛰어나 지역이미지 제고와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함(대표성). 예를 들어, 청양 매실, 가평 잣, 고창 복분자, 청도·상주 감 등임.
- 향토유실수종은 인간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종이 많음(친근성). 정원, 마을 공터, 도로변, 산기슭 등에서 많이 발견되며, 최근에 가로수, 정원수로 인기가 있음.

3. 향토유실수종의 분류

- 향토유실수종의 유형은 크게 재배수종, 일반수종, 약용수종,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재배수종은 지역농가에서 집단적으로 식재가 가능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성이 있는 수종이며, 대표적인 수종으로는 밤, 매실, 유자, 호도, 대추 등이 있음.

- 일반수종은 주로 산, 들의 야생에서 자생하는 수종이며, 도토리, 산딸기, 머루, 다래, 산초나무, 초피나무 등이 대표적인 수종임.
 - 약용수종은 주로 한약재로 쓰이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수종이며, 대표적인 수종으로는 산수유, 오미자, 작약, 홍화 등이 있음. 기타 수종으로는 죽순, 두릅 등과 같은 토종작물임.
- 이 연구에서는 대상으로 하는 향토유실수종은 <표 1>과 같음.

<표 1> 향토유실수종의 유형 구분

구분	수종명	연구대상수종
재배수종	밤, 매실, 유자, 호도, 대추, 모과, 잣, 뽕은 감, 은행 석류, 무화과, 앵두 등	밤, 호도, 대추, 잣, 뽕은 감 은행
일반수종	도토리, 산딸기, 머루, 다래, 산초, 초피, 개암, 으름 고로쇠·박달나무·자작나무 등 수액생산수종 등	도토리, 산딸기, 머루, 다래 산초, 초피, 수액생산수종
약용수종	산수유, 오미자, 독활(땅두릅), 작약, 홍화, 음양곽, 장뇌 동글레 등	산수유, 오미자, 독활
기타	죽순, 두릅, 고사리 등	죽순, 두릅, 고사리

4. 향토유실수 지역별 생산 현황

- 향토수종의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포항시는 산딸기·수액(고로쇠나무 수액) 등, 경주시는 잣·고사리·죽순 등, 김천시는 호도, 영주시는 은행, 문경시는 오미자, 경산시는 대추, 의성군은 산수유·도토리, 영양군은 거자수액, 청도군은 뽕은 감·밤, 성주군은 박달나무 수액, 봉화군은 머루·다래·산초 등, 울진군은 초피, 울릉군은 땅두릅 등이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음.
- 그 중에서 포항시 산딸기·나무 수액, 경주시 죽순, 문경시 오미자, 청도군 뽕은 감, 울진군 초피, 울릉군 땅두릅 등은 생산량에 있어서 타시·군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2〉 시·군별 향토수종의 생산 실태

(단위 : %)

수 종	경북도내 생산량 1위 시·군	경북도내 생산량 2위 시·군	전국 생산 비중
밤	청도(23.9)	상주(13.8)	1.0
호 도	김천(39.4)	예천(14.1)	20.4
대 추	경산(66.0)	청도(15.3)	61.7
잣	경주(54.8)	영덕(13.5)	3.9
뽕은감	청도(70.8)	상주(22.4)	56.2
은 행	영주(15.2)	상주(13.4)	3.3
도토리	의성(16.6)	예천(11.7)	11.0
산딸기	포항(96.1)	봉화(0.7)	13.4
머 루	봉화(43.1)	영양(35.9)	11.7
다 래	봉화(16.0)	예천(12.6)	6.2
산 초	봉화(18.4)	칠곡(14.4)	16.8
초 피	울진(58.6)	영덕(15.8)	21.4
산수유	의성(28.9)	봉화(26.4)	11.0
오미자	문경(68.6)	상주(16.7)	25.3
수 액	포항(35.7)	성주(20.9)	4.7
두 림	경주(18.9)	울릉(15.3)	8.3

제3장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 활용 실태

1. 브랜드 정의

- 상표법에서는 “상표(brand)란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다.”고 규정함(상표법 제2조1항).
- 브랜드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브랜드는 브랜드명뿐만 아니라 표현, 상징물, 디자인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임. 다른 하나는 브랜드는 특정기업이 자신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경쟁자로부터 차별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2. 지역브랜드화란

- 일반적으로 ‘브랜드(brand)화’란 공산품이나 식품의 가공품 판매에서는 기업 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일찍이 자리 잡은 개념이지만, 지역브랜드는 비교적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생소한 개념임. 지역브랜드화의 의미는 상품명, 심벌마크, 생산자 또는 생산업체 명, 품질에 대한 보증 등을 명시하여 다른 경쟁 상품과 차별화를 꾀하고 나아가서 상품의 우위성을 확보하는 유통행위로 정의되고 있음.
- 이 연구에서 ‘지역브랜드화’란 향토유실수종에 대한 상품명, 심벌마크, 품질보증 등 상품에 대한 브랜드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선행단계로서 시·군별 수종을 선정과 활용을 통한 지역별 대표성과 차별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함.

3. 지역브랜드의 필요성

- 첫째, 지역자원의 상품화임. 지역이나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브랜드화 할 경우, 이것이 하나의 관광요소가 되어 관광객을 유인이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 예를 들어, 축제, 전통문화, 문화유산 등을 활용하여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브랜드화를 추진하는 것은 중요
- 둘째,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가령, 농·특산물, 축제 및 이벤트, 향토지적재산 등이 브랜드화 되면 주민은 지역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임.
- 셋째 지역발전의 토대 구축.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역브랜드화는 타 지역과 차별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지역소재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제휴하여 발전시켜나가야 함. 그러면, 대학에서는 인재육성을, 공공기관 체계적인 지원, 연구소에서 연구개발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지역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임.

4.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 활용 실태

- 향토유실수종 및 지역 농·특산물을 주제로 한 상징물(캐릭터, 브랜드)을 사

- 용하는 시·군의 비율이 너무 낮음. 대표적으로 김천시 ‘포도’(캐릭터), 상주시 ‘감’, 영주시 은행잎(심벌마크), 의성군 ‘마늘’, 영양군 ‘고추’, 성주군 ‘참외’ 등이 있음. 아직까지 지역경쟁력을 높이는데 브랜드 및 캐릭터의 인식이 낮아 상징물의 개발이 안 된 시·군이 많음.
- 시·군의 슬로건·미래상은 지역의 특성을 알리기보다는 막연한 이미지를 설정한 지역이 많음. 자연과 문화, 예술, 역사 등 막연하고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슬로건이 대부분임. 예를 들면, ‘가장 살고 싶은~’, ‘선비의 고장 ~’, ‘전원도시~’, ‘전통과 문화의 고장~’ 등임.
 - 시·군을 나타내는 나무는 주로 은행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감나무 등이며, 은행나무는 8개 시·군이, 소나무는 6개 시·군, 느티나무 3개 시·군 등으로 나타남. 이는 중복으로 사용하여 지역특성을 차별화 시키는데 효과가 낮음.
 - 지역 농·특산물은 시·군별로 다양하게 지정되어 있지만, 향토유실수종과 관련한 농·특산물은 곱감, 감식초, 약대추, 산수유, 머루주 등 소수에 불과함.
 - 향토유실수종과 관련한 축제, 이벤트, 향토음식은 거의 없음. 다만, 산수유축제(의성), 거제약수축제(성주) 등이 있으나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임.

제4장 향토유실수종 선정

1. 선정기준

- 향토유실수종을 지역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해당 시·군별로 적합한 향토유실수종의 선정이 필요함.
- 향토유실수종의 선정을 위한 분석기준은 차별성(상품성), 인지성(생산의 질적 양적 측면), 관광자원성, 지역대표성(역사성)을 중심으로 함.
 - 인지성(생산성) : 이것은 향토유실수종과 얼마나 친숙한가를 나타내는 기준
 - 차별성(상품성) : 지역에서 생산되는 향토유실수종이 타 지역과 차별성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
 - 관광자원성 : 향토유실수종을 관광자원으로 활용가능성을 파악하는 기준

- 지역대표성 : 향토유실수종이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 또는 얼마나 오래 동안 특정지역에서 자생·식재되어 왔는가를 나타내는 기준

2. 분석 지표

- 분석지표는 향토유실수종의 선정기준인 인지성, 차별성, 관광자원성, 지역대표성 등 선정기준을 세분화하여 지표를 설정함.

〈표 3〉 지역브랜드화를 위한 향토유실수종 선정 지표

구분	분석 요인			
		3점(○)	2점(△)	1점(x)
인지성 (생산성)	양적	해당 향토유실수종의 경북내 생산량이 50%이상인 경우	해당 향토유실수종의 경북내 생산량이 30%이상인 경우	10%이상
	질적	23개 시·군 중 해당 향토유실수종의 생산량이 2위 이내	23개 시·군 중 해당 향토유실수종의 생산량이 5위 이내	10위 이내
관광자원성		축제 및 이벤트, 향토음식 등이 향토유실수종과 관련이 2개 이상	축제, 이벤트, 향토음식 등이 향토유실수종과 관련이 1개 이상	기타
차별성 (상품성)		지역 농·특산품 중 향토수종과 관련된 상품의 2개 이상	지역 농·특산품 중 향토수종과 관련된 상품 1개 이상	기타
대표성 (역사성)		지자체의 캐릭터, 지정나무, 꽃, 브랜드 등에 향토유실수종과 관련이 2개 이상	지자체의 캐릭터, 지정나무, 꽃, 브랜드 등에 향토유실수종과 관련이 1개 이상	기타

3. 분석 결과

구분	향 토 유 실 수 종		
	1위	2위	3위
포항시	산딸기	수액	
경주시	잣	죽순	두릅, 고사리
김천시	호도		
영주시	은행		
상주시	감	밤, 은행, 산수유	
문경시	오미자	감	
경산시	대추		
의성군	산수유	감	대추, 도토리
청송군	약대추		
영양군	머루	수액	두릅, 고사리
영덕군	잣, 초피		
청도군	감	밤, 대추	
성주군	수액		
칠곡군	산초		
예천군	은행	호도, 도토리, 다래	
봉화군	머루	대추, 다래, 산초, 산수유	
울진군	초피	두릅	
울릉군	땅두릅		

제5장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 방안

1. 향토유실수종 선정 및 발굴

- 기존 향토유실수종중에서 경쟁력 있는 작목을 선정함. 제4장에서 지역별 향토유실수종의 선정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포항시 산딸기, 경주시 잣, 김천시 호도, 영주시 은행, 상주시 감, 문경시 오미자, 경산시 대추, 의성군 산수유, 영양군 머루, 영덕군 초피, 청도군 감, 성주군 수액수종, 칠곡군 산초, 예천군 도토리, 봉화군 머루, 울진군 초피 등으로 나타났음.
- 향토유실수종의 개량을 통한 신품종의 발굴임. 머루, 다래 등 야생에서 자생하는 향토유실수종들은 생산성이 낮으므로, 품종개량을 통한 신품종의 개발이 필요함. 이것은 향토수종의 생산성을 제고는 물론 수종자체의 브랜드화가 가능하며, 지역의 특성과 이미지를 담은 신품종의 개발·육성은 지역브랜드로서 지역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함.

2. 향토유실수종의 보급 확대

- 향토유실수의 보급은 해당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특성과 농가소득을 증대를 감안하여 향토유실수의 묘목을 생산·보급하고, 작물의 대한 재배기술교육을 병행
- 향토유실수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유도. 1가구 1나무심기, 1마을 1유실수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의 토대 구축
- 마을 주변, 마을 숲, 강변, 유원지 등 소규모 공원을 조성. 마을 진입부 및 공한지에는 공간특성을 감안하여 유실수, 속성수, 특용수 등 수종을 선정하여 전체적으로 아름답고 정감 넘치는 마을경관 조성함. 한계농지(생산성이 낮은 농지), 태풍피해로 인해 농사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향토유실수종 식재를 적극 권장함. 도시지역에는 가로수와 도시공원에 향토유실수를 식재하여 지역특성과 지역이미지를 제고시킴.

3. 향토유실수종의 관광자원화

- 향토유실수종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촌의 노동인력의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감안하여 관리 비용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함. 마을 단위로 대규모 유실수단지를 조성하여 공동으로 관리하여 생산성을 높임.
- 향토유실수를 이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특산물로 지정하여 상품의 질을 강화. 향토유실수의 지역특산물은 외국 농산물 및 타 지역과 차별화 시키기 위하여 품질의 규격을 두고 엄격한 관리를 함. 향토유실수종과 관련한 대표적인 특산물로 매실고추장, 감식초, 청도반시, 꽃감, 홍화씨, 안동단호박 등이 있음.
- 향토유실수종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함. 현재 향토수종과 관련한 축제는 청도 감 축제, 의성 산수유 축제, 성주 거자약수 축제 등이 있음. 그러나 향토유실수종과 관련하여 단순히 행사를 치른다는 개념만으로는 성공적인 이벤트의 개최 및 활성화를 보장할 수 없음. 이벤트나 축제를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관광상품을 찾게 되는 이유나 동기를 먼저 파악하여야 함. 관광객이 실제 참여하여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고유의 관광브랜드로 정착시킴. 지역에서 축제 개최가 가능한 향토유실수종은 김천 호도, 영주 은행, 경산 대추, 봉화 머루 등임.

4. 향토지적 재산화 및 종의 보존

- ‘향토지적재산’은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기술이나 문화, 자연생태적 자산을 말함. 특히 지역성과 전통성을 갖춘 재산으로 현대적 의미에서 향토지적재산은 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큰 것임. 경북에는 청도반시, 의성홍화·산수유, 봉화토종약대추 등이 지역특성과 전통성을 갖춘 향토유실수임.
- 종(種)의 자원화시대에 대비하여 향토유실수종의 종을 보존. 지역의 우수한 향토수종은 적극적으로 개발 및 발굴하며, 야생에서 자생하는 지역토착수종

은 애호가들에 의한 남획을 방지하여 고유의 향토수종을 지속적으로 보존·관리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이 연구는 지역의 향토유실수종을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 시·군별 비교우위의 향토유실수종을 선정과 활용, 지역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향토유실수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이 필요. 특히 경북도의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시·군 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이 중요
- 농·임산물의 품질을 인정해 주는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 또는 대행기관이 필요. 향토유실수종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킴.
- 향토유실수 종의 보존과 향토지적재산화를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추진해야 함. 향토수종에 대한 향토지적재산의 조사와 발굴은 향후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 제고에 토대가 될 것임.
- 향토유실수종은 지역 고유의 자원이며, 지역주민과 오랜 세월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음. 이처럼 우리 고장의 소중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판단됨.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 방안

들 어 가 면 서

제 1 장



제1장

들어가면서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방은 현재 『브랜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역특산품이나 지역 이미지와 관련된 상표 출원이 늘어나면서 ‘농·특산물 및 전통문화의 브랜드 시대’가 열리고 있다¹⁾. 경북도는 2003년 10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문화엑스포 상표와 로고를 미국 특허청에 등록하여 세계적인 문화브랜드를 탄생시켰다. 이것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발굴·육성하여 지역브랜드를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쟁력과 발전을 도모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브랜드화 시킴으로써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차별화 시키기 위한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 관광자원화, 지역 이미지 제고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 경쟁력과 이미지 강화를 꾀하고 있다.

그 중에서 향토유실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실정이다. 향토유실수종이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정한 지역에 오랫동안 자생하거나 식재 되어 있는 과실이 열리는 작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향토수종은 생산성, 관광자원성, 지역대표성 등의 개발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토유실수종과 관련된 브랜드를 개발·육성할 경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종으로 각광받을 것이다.

향토유실수 지역브랜드화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열악한 농촌환경 개선에 대한

1) 특허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2002년 6월까지 출원한 상표는 총 3천3백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된 상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금산인삼 태극삼’(충남 금산), ‘한산모시’(충남 서천), ‘임꺽정 장사씨름대회’(충북 괴산), ‘함평나비대축제’(전남 함평), ‘하회마을’(경북 안동) 등이다.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5백64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4백6건), 충북(3백78건), 경기(3백67건) 등의 순이다. 기초단체별로는 경북 안동시가 97건, 전남 함평군이 85건, 경기 파주시가 79건, 강원 태백시가 68건의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인구의 노령화를 감안하여 노인 및 부녀자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적정 작목 및 대표 품목을 향토유실수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 체험관광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켜야 한다. 특히, 주5일 근무제의 실시, 체험·학습 중심의 관광 및 여가선용 행태 변화 등에 부응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향토유실수종 브랜드화는 농촌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측면과 농가의 실질 소득 작목을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 향토유실수는 지역의 관광자원화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으며, 현재 어려운 농촌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대두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국내연구로는 「경기도내 지역·산업브랜드 제고를 통한 특화산업육성 방안 기초연구」²⁾가 있으나, 지금까지 향토유실수종의 브랜드화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향토유실수종에 대한 통계자료가 구축되지 못하였고, 지역 고유의 유실수종에 대한 관심도가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지역의 향토유실수종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 시·군별로 대표적인 향토유실수종을 선정하고, 그 활용방향과 지역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향토유실수종에 대한 개념 정립과 실태조사이다. 지금까지 향토유실수종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사과, 배, 포도 등 일반적인 과수에 대한 통계자료는 있지만, 향토유실수에 대한 통계자료가 거의 없다.

둘째, 경북도의 해당 시·군별로 적합한 향토유실수종의 선정이다. 여기에서는 향토유실수종 선정을 위한 기준과 지표를 제시한다.

셋째, 선정된 향토유실수종의 활용 및 브랜드화 방안을 제시한다. 향토유실수종의 브랜드화를 위한 기본전략과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향토유실수종을 발굴하여 시·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지역발전 및 지역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2) 경기개발연구원(2001), 「경기도내 지역·산업브랜드 제고를 통한 특화산업 육성방안 기초연구」.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조사로는 기존의 연구보고서, 관련 논문, 인터넷을 이용하여 향토유실수종 및 브랜드의 정의, 특성, 구성요소 등 이론적인 부분을 정리하였다. 향토유실수종에 대한 통계자료가 현실적으로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농·임업 관련 기관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과 면접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광의로는 전국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는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중심으로 해당 시·군의 농·특산물, 향토음식, 향토유실수종 등을 파악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향토유실수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가 미흡하여 산림청에서 발표한 임산물 통계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향토유실수종을 선정·분석하였다. 선정된 수종을 중심으로 그 활용 및 지역브랜드화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3. 연구의 구성

이 연구는 향토유실수종의 발굴·선정을 통한 지역브랜드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역경쟁력과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내용 구성은 크게 6장으로 구분하였다.

제1장은 연구의 서론부분으로서 연구 배경과 필요성, 연구 목적·방법 등을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향토유실수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향토유실수종 분류와 생산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브랜드의 정의, 구성요소와 지역브랜드화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기존의 지역브랜드, 농·특산물, 축제·이벤트 등과 관련하여 향토유실수종의 활용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지역브랜드 활용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역브랜드화를 위한 향토유실수종의 선정기준과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경북의 23개 시·군별로 향토유실수종을 선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선정된 향토유실수종의 활용과 지역브랜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브랜드화를 위한 기본전략과 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결론과 정책적 제언으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표 1-1〉 연구의 구성과 체계

구분	연구 내용	세부 내용	범위
제1장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향토유실수종의 선정과 브랜드화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업환경 개선 • 지역대표수종 선정 	광의 전국 협의 경북
제2장	향토유실수의 개념, 특성 향토수종의 분류와 실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유실수 정의 • 수종별 생산 실태 	
제3장	지역브랜드 활용 실태 지역 브랜드 조사·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별 상징물 농·특산물, 축제 등 • 국내·외 사례 검토 및 시사점 	
제4장	해당 시·군별 향토유실수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기준 및 지표 선정 기준 제시 	
제5장	향토유실수종의 활용과 지역브랜드화의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전략 • 향토수종 활용 • 브랜드화 방안 	
제6장	마무리 결 론	정책 제언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 방안

향토유실수종의 개요와 생산 현황

제 2 장



제 2 장

향토유실수종의 개요와 생산 현황

제1절 향토유실수의 개념과 특성

1. 향토와 향토유실수

향토(鄕土)란 지역사회가 출생지·현주소 등의 계기에 의하여 개인이나 인간집단과 특수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형성되는 사회 개념이다³⁾. 경우에 따라 자기가 태어난 곳, 조상들이 생활한 곳, 소년시절을 보낸 곳 등의 의미로 쓰여 약간은 막연한 개념이지만, 요컨대 일정한 지역으로서 오랫동안 생활하던 곳을 말한다. 또한 향토는 사람들이 생활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갖는 지역사회를 말하며, 그 지역적 범위는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부락이나 마을, 읍·시,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등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유실수(有實樹)란 과일생산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를 말한다. 즉, 과일나무를 말하는데 임업에서는 이것을 유실수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특히 임업에서 취급하고 있는 유실수로써는 밤나무, 살구나무, 대추나무, 호두나무, 개암나무 등이 있다.

향토유실수종(鄕土有實樹種)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생식물, 토착식물, 특산식물, 향토식물 등 유사한 용어들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생식물이란 말은 학술적 용어는 아니지만 그 한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엄격히 말해 넓은 의미로는 식물이 어떤 지역에서 인공적인 보호를 받지 않고 자연상태 그대로 생활하는 것(Spontaneous Plants)을 말한다. 외래식물이라 하더라도 오래 전부터 그곳에 귀화되어 살고 있는 귀화식물(Naturalized Plants)도 토착식물과 함께 자생식물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어떤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살고 있는 토착식물(Indegenous Plants)만을 의미한다⁴⁾.

3)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4) 국내에 분포하는 식물의 종수는 자생식물은 4,158종, 외래식물은 438종,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는 특산식물은 407종이며, 자생식물 중 목본식물은 1,178종, 초본식물은 2,980종인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www.kwfa.org/wildflower.php)

어느 특정국가 또는 지역에만 존재하는 식물을 특산식물(Specialized Plants)이라 하며, 물론 이것들은 좁은 의미의 자생식물에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만 사는 식물보다는 우리나라와 인접국가에 함께 살고 있는 식물이 더 많다. 따라서 자생식물 중에는 중국·일본 등에도 같이 사는 식물이 많다.

한편 인간이 돌보지 않은 상태의 들이나 산에 자라는 식물을 야생식물(Wild Plants)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재배식물(Cultivated Plants)의 상대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길러온 식물을 향토식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무인 경우는 향토수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은 그 마을 또는 그 지역에 오랫동안 적응된 식물이기 때문에 그 곳의 기후와 풍토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유사한 정의를 종합하면, 향토유실수종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생하거나 많이 식재되었고, 인간생활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과실이 열리는 나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밤, 은행, 잣, 감 등의 과일나무가 이에 해당된다.

2. 향토유실수의 특성

향토유실수는 토착수종으로 특정지역에서 오랫동안 자생하거나 식재되어 왔다. 이러한 연유로 향토유실수는 경제성, 야생성, 약용성, 지역대표성, 친근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경제성(經濟性)이다. 향토유실수종은 대부분 생산량이 적어 해당 작목을 특화시킨다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즉 밤, 대추 등 일부 수종을 제외하고는 그 생산량이 많지 않다. 따라서 자원의 희소성이 높아 경제 작목으로 개발이 가능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생산성이 낮다는 의미는 소비량이 그 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1차 상품에서 가공·처리하여 2차 상품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면 경제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야생성(野生性)이다. 향토유실수종 중에서 농가에서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수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과 들에 자생한다. 야생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머루, 다래, 산초, 초피 등은 애호가들의 지나친 사랑으로 남획되는 경우가 있다. 몇몇 향토수종은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멸종할 우려도 있으므로 지역 차원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약용성(藥用性)이다. 대추, 잣, 감, 은행, 산수유, 오미자 등은 한방의 원료로

이용되거나 옛날부터 전해오는 민간요법으로 널리 애용되어 왔다.

넷째, 지역 대표성(代表性)이다. 향토유실수종은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였다. 오래 전부터 특정지역에 많이 생산되고 상품성이 뛰어나 지역이미지 제고와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예컨대, 청양 매실, 가평 잣, 고창 복분자, 청도·상주 감 등이다.

다섯째, 친근성(親近性)이다. 향토유실수종은 인간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었으며,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종이 많다. 은행, 대추, 잣 등은 정원, 마을 공터, 도로변, 산기슭 등에서 많이 발견되며, 최근에 가로수, 정원수로 인기가 많다. 이러한 수종은 특별한 관리를 요구하지 않아 노동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집단적으로 재배할 경우에도 사과, 배, 복숭아 등 특용과수보다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제2절 향토유실수의 수종분류와 재배 동향

1. 향토유실수종의 분류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유실수종으로는 밤, 은행, 석류, 보리수, 매실, 키위(참다래), 조선앵두, 살구, 머루, 으름, 다래, 감, 유자, 산수유, 대추, 자두, 무화과, 개암, 모과, 호도, 산딸기 등 다양하다.

향토유실수종의 유형은 크게 재배수종, 일반수종, 약용수종,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산림청의 임업생산통계를 토대로 하였다.

재배수종은 지역농가에서 집단적으로 대규모 식재가 가능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성이 있는 수종이며, 대표적으로 밤, 매실, 유자, 호도, 대추 등이 있다. 일반수종은 주로 산, 들의 야생에서 자생하는 수종이며, 대표적으로 도토리, 산딸기, 머루, 다래, 산초, 초피 등이 있다. 약용수종은 주로 한약재로 사용되며, 농가소득 과도 연관성이 높은 수종이다. 대표적으로 산수유, 오미자, 작약, 홍화 등이 있다. 기타 수종으로는 죽순, 두릅 등과 같은 토종작목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상으로 하는 향토유실수종은 <표 2-1>과 같다.⁵⁾

5) 산림청, 임업통계자료, 2003.7 참조(www.foa.go.kr/forest/).

〈표 2-1〉 향토유실수종의 유형별 구분

구 분	수 종 명	연구 대상수종
재배수종	밤, 매실, 유자, 호도, 대추, 모과, 잣, 뽕은 감, 은행 석류, 무화과, 앵두 등	밤, 호도, 대추, 잣, 뽕은 감 은행
일반수종	도토리, 산딸기, 머루, 다래, 산초, 초피, 개암, 으름 고로쇠·박달나무·자작나무 등 수액생산수종 등	도토리, 산딸기, 머루, 다래 산초, 초피, 수액생산수종
약용수종	산수유, 오미자, 독활(땅두릅), 작약, 홍화, 음양곽, 장뇌 등글레 등	산수유, 오미자, 독활
기 타	죽순, 두릅, 고사리 등	죽순, 두릅, 고사리

2. 수종별 특성과 재배 동향

여기에서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향토유실수종을 중심으로 수종별 특성, 원산지, 재배동향, 생산량, 식생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⁶⁾.

가. 재배수종

■ 밤나무

밤나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실수로서 예부터 널리 재배되어 왔다. 함경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며 표고 상으로 북부지역은 600m 이하, 중부에서는 800m, 남부에서는 1500m 이하의 지역에 분포한다.

1958년경에 전국적으로 밤나무혹벌이 발생하여 만연함으로써 몇 년 사이에 재래종 밤나무는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전국의



〈그림 2-1〉 밤

6) 향토유실수종별 특성, 원산지, 재배동향, 식생 등 일반적인 자료는 임업연구원,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네이버백과사전 등의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였음.

밤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재배목적으로 들여와 널리 식재되고 있는 일본 밤 재배품종, 한국재래 선발품종 및 일본 밤과 한국 밤과의 교잡으로 만들어진 개량품종의 보급으로 한국 밤의 원형은 일부 천연 자생지나 마을 인근에 잔재하고 있는 노거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북의 밤 생산량(2002년 기준)은 705ton 이며, 이는 전국 생산량 72,405ton의 0.97%를 차지하고 있다.

■ 호도나무

호도는 가래나무과의 낙엽교목인 호두나무(*Juglans sinensis*)의 열매이며, 거의 원형이고 핵과(核果)이다. 외과피는 육질로 녹색이며, 내과피(핵과:核果)는 매우 단단한 골질로 잘 깨지지 않는다. 중국이 원산이며 중부 이남에서 재배하고 있다. 나무 높이는 20m에 달하고 가지는 굵으며 사방으로 퍼진다. 열매는 식용하고 목재는 가구재로 이용한다.

호도는 한(漢)나라 장건(張騫)이 서역(西域)에서 들여와 현재 중국의 각지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특히 화북에서 최대로 재배되고 있다. 한국에는 고려시대에 유청신(柳淸臣)이 원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가지고 와서 고향인 천안에 처음으로 심었다고 한다. 일본에는 18세기경 한국에서 전파되었다⁷⁾.

호두나무는 예부터 산림수목으로 중요시되어 왔지만, 과수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된 것은 최근이며, 수세(樹勢)가 비교적 강건하고, 병충해가 비교적 적으며, 토양적응성이 강하므로 야산개발과 함께 향후 더욱 유망한 과종(果種)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북의 호도 생산량(2002년)은 214.7ton으로 전국 생산량 1,051.6ton의 20.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2〉 호도

■ 대추나무

대추나무는 유럽 동남부와 아시아 동남부가 원산지이다. 대추나무는 마을 부근에서

7)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재배한다. 열매는 조(棗) 또는 목밀(木蜜)이라고도 한다. 표면은 적갈색이고 모양은 타원형이다. 열매의 길이는 1.5~2.5cm에 달하며, 빨갭게 익으면 단맛이 있다. 과실은 생식할 뿐 아니라 채취한 후 푹 말려 건과(乾果)로서 과자·요리 및 약용으로 쓰인다. 대추는 일상생활 가운데 대추술, 대추차, 대추식초, 대추죽 등으로 활용된다. 대추의 장점중의 하나는 조방적인 재배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과수가 갖고 있는 단점중의 하나는 철저한 집약적 재배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대추는 힘을 덜 들고고도 더 많은 면적을 경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우선 정지·전정을 하는데 고도의 기술이나 많은 노력이 소요되지 않으며 과실 숙음질이나 봉지를 띄울 필요도 없다. 특히 기후에 대한 적응범위가 넓고 토질을 별로 가리지 않으므로 산지를 이용한 면적 재배가 가능하다.



〈그림 2-3〉 대추

경북의 대추 생산량(2002년 기준)은 5,267.1ton으로 전국 생산량 8,537.1ton의 61.7%를 차지하고 있다.

■ 잣나무

잣은 소나무과에 속하는 잣나무의 씨앗으로, 큰 솔방울처럼 생긴 잣송이에서 떨어낸다. 잣나무는 솔잎 모양의 잎이 한 곳에서 다섯 잎씩 나오기 때문에 ‘오엽송’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만주, 시베리아, 중국 북부 지방의 산골짜기나 산중턱에서 잘 자란다.

잣은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특산물로서, 세계적으로 그 명성이 높았다고 한다. 명나라 때에는 ‘신라 송자(신라 잣)’이라고 해서 가장 약효가 높은 것으로 『본초강목』에 기록되어 있다. 또 ‘해동 송자’(동쪽 나라의 잣. 즉 우리나라의 잣)라고 해서 고려 인삼과 함께 우리나라의 특산품으로 중국을 비롯해서 서역 나라에까지 수출되었다.



〈그림 2-4〉 잣나무

경북의 잣 생산량(2002년 기준)은 26.4ton으로 전국 생산량 677.3ton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 감나무

감의 원산지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남아시아 일대이다. 중국에서는 기원 전부터 재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명종 때 고욤에 대한 기록으로 보아 고려시대부터 감 재배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감은 과수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과수이다. 덜 익은 감을 수확하여 따뜻한 물에 담아 우린 감을 만들고, 익은 감은 연시 또는 꽃감을 만들며, 꽃감을 이용한 수정과(水正果)와 약밥에 이용한다. 숙시는 장아찌(漬), 초(醃) 등을 만들고, 팽감즙은 염료와 방부제로 사용했으나, 화학섬유의 출현으로 산업화되지 못하였다. 또한, 민간약(단방약)으로 적으나마 옛날부터 쓰여 왔다. 한방에서는 시상(柿霜)이라 하여 감꼭지를 말려 딸국질에 다려먹고, 팽감의 즙액은 뱀, 벌, 모기 등에 물린데 바르기도 하였다.

감은 크게 뚝은 감과 단감이 있는데 우리나라 재배종은 대부분 뚝은 감이고, 다만 외래종 단감이 남부지방에 일부 재배되고 있다. 우리나라 뚝은 감의 재배 면적은 7,380ha이며 재배농가 수는 2만 가구가 조금 넘는다. 지역별로는 경북지역이 전체면적의 32%로 가장 많다.



〈그림 2-5〉 감

경북의 뚝은 감 생산량(2002년 기준)은 29,170.8ton으로 전국 생산량 51,876.4ton의 56.2%를 차지하고 있다.

■ 은행나무⁸⁾

은행나무는 잎, 열매는 물론 수피, 목재의 쓰임새에 있어서도 훌륭한 효용가치가 있는 나무이다. 뿐만 아니라 나무의 신사라고 불리는 은행나무는 수형이 강직하고 늠름하여 가로수로도 단풍이 아름다워 조경용이나 분재로서도 각광받는 나무이다.

8) www.gingko.co.kr 에서 인용

은행잎에는 징코라이드 A B C, 진놀, 프라보놀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말초혈관장애, 노인성치매 등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행열매는 외종피, 중종피, 내종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종피는 연질로 되어있고 나무에 붙어있을 때는 냄새가 나지 않지만, 떨어져 으깨지면 고약한 냄새가 나고 옷이 타는 경우도 있다.

전국 어느 도시, 어느 지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로수는 은행나무이다. 어디서나 잘 자라고 공해에 강하며 특히 관리비용이 적게 드는 가로수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에 가장 많은 시·군목(市·郡木), 교목(校木)으로 지정되어 있다. 애써 주기적으로 농약 살포, 전지·전정 등도 필요없다. 심은 후 초기에 시비만 잘해 주면 이처럼 관리비가 적게 든다.

경북의 은행 생산량(2002년 기준)은 51.8ton으로 전국 생산량 1,582.3ton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6〉 은행

나. 일반 수종

■ 도토리

도토리는 떡갈나무를 비롯한 졸참나무, 물참나무, 갈참나무, 돌참나무 등 참나무과 열매의 총칭이다. 견과로서 겉은 단단하고 매끄러운 과피(果皮)가 있으며, 속에 조각으로 된 1개의 종자가 들어 있다. 모양은 공 모양, 달걀 모양, 타원 모양 등이며 크기도 여러 가지이다. 하부 또는 중부까지 총포가 변형된 각두 또는 각정으로 싸여 있다. 이 각정의 성질은 종류를 구별하는 데 유용하다.

예로부터 목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으며, 과



〈그림 2-7〉 참나무

피가 단단해서 변형이 안 되는 도토리는 장난감이나 장식품을 만드는 데 쓰며 껍데기가 두꺼운 것은 염주를 만드는 데에도 쓴다. 전 세계적으로 고대의 거주지에서는 도토리가 발굴되기도 한다.

경북의 도토리 생산량(2002년 기준)은 182.6ton으로 전국 생산량 1,663.1ton의 11.0%를 차지하고 있다.

■ 산딸기

산딸기는 쌍떡잎식물로서 장미목, 장미과의 낙엽관목이다. 복분자 딸기는 6월초에 꽃이 피서 7월 중순에서 8월 초순경에 붉은색 열매가 달리며, 완전히 익으면 검은색이 된다. 토박한 토양에서도 생육이 왕성하고, 병해충에 매우 강하여 재배가 용이하다. 열매는 약제나 복분자 술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토종은 약리적 작용과 독특한 맛이 우수하여 앞으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8〉 산딸기

경북의 산딸기 생산량(2002년 기준)은 96.6ton으로 전국 생산량 721.3ton의 13.4%를 차지하고 있다.

■ 머루

머루는 쌍떡잎식물로서 갈매나무목, 포도과의 덩굴식물이다. 분포지역은 한국, 일본 등이다. 열매는 장과(漿果)로 지름 8mm 정도이며, 흑자색으로 익는다.



〈그림 2-9〉 머루

야생머루를 품종 개량한 개량머루는 병해충 및 추위에 강하여 관리가 용이하다. 야생습성으로 수세가 강하고 산간지 조경용도로 많이 이용된다. 또한 식재 2년부터 수확이 가능하고 가정과수로 인기가 있다. 열매는 머루주 등 술을 담기도 하고 다소 신맛이 있으며, 식용하거나 약용한다.

경북의 머루 생산량(2002년 기준)은 67.4ton으로 전국 생산량 577.6ton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 다래

다래는 낙엽 덩굴식물인 다래나무의 열매이다. 목자·등리·미후리라고도 한다. 머루와 함께 대표적인 야생과일의 하나로서 전국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자란다. 양지, 음지에서 모두 잘 자라고 야생종으로 병해충이 없다. 손가락 굵기 정도의 둥근 열매로서 빛깔은 푸르고 단맛이 강하며 9~10월에 익는다. 종류로는 다래·개다래·쥐다래가 있다. 개다래는 길고 끝이 뾰족하며 익으면 주황빛이 된다. 열매는 달지 않고 톡 쏘는 맛이 있어서 약용, 식용으로 쓰며, 다래술은 인기가 많다. 또한 다래나무는 산간지 과수포지나 조경수로서 가치 높은 수종이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여와 재배하는 키위(kiwi : 양다래)도 다래의 한 종류이다.

경북의 다래 생산량(2002년 기준)은 4.8ton으로 전국 생산량 77.0ton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10〉 다래

■ 산초

산초나무는 운향과에 속하는 낙엽관목으로 높이가 3~4m에 달하고 줄기와 가지에 탁엽이 변해서 된 가시가 불규칙하게 나 있고, 잎은 13~21개 정도의 잔잎으로 이루어진 겹잎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잎에서 특유의 향기가 나고 잎 가장자리에는 톱니 형태의 돌기가 10개쯤 있다.

산초나무가 열매를 만들 수 있는 횡수가 10년이라고 알려져 있고 10년 이상이 되면 나무가 경제성이 없어지고 열매도 맺지 않음은 물론 더 이상의 연수가 되면 고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 2-11〉 산초

산초유를 장기간 복용하면 해수(심한 기침)에 특효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구충작용과 살균작용이 탁월함은 물론 잎의 독특한 향기와 가을에 까맣게 익는 열매를 보기 위해 정원이나 공원에 심기도 한다.

경북의 산초 생산량(2002년 기준)은 7.6ton으로 전국 생산량 45.3ton의 16.8%를 차지하고 있다.

■ 초피⁹⁾

초피는 제피(경상도), 쟈피(전라도), 조피(북한), 지피, 남추, 진초 등으로 불린다. 초피나무는 해발 1000m 아래 남쪽지방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 중부내륙지방에서는 볼 수 없으나 해안을 따라서는 중부지방까지 올라온다. 초피는 특 쏘는 매운 맛과 상쾌하고 시원한 맛 때문에 향신료로 이용하며 추어탕, 민물고기 요리에는 비린내 제거를 위해 초피가루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또한 음식의 맛을 나게 하고 채소의 풋 냄새와 민물고기, 생선의 비린내, 육류의 누린내 등 기타 잡냄새를 없애고 입맛을 개운하게 하여 소화 작용을 돕고 각종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약효가 있어 한방과 민간약으로 많이 사용한다.

경북의 초피 생산량(2002년 기준)은 14.9ton으로 전국 생산량 69.6ton의 2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12〉 초피나무

다. 약용수종

■ 산수유

산수유는 층층나무과의 낙엽교목인 산수유나무의 열매이다. 산수유나무는 한국·중국 등이 원산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중부이남에서 재배된다. 타원형의 핵과(核果)로서

9) <http://myhome.hanafos.com> 에서 인용

처음에는 녹색이었다가 8~10월에 붉게 익는다. 약간의 단맛과 함께 짙고 강한 신맛이 난다. 10월 중순의 상강(霜降) 이후에 수확하는데, 육질과 씨앗을 분리하여 육질은 술과 차 및 한약의 재료로 사용한다. 산수유나무는 꽃과 열매가 좋아 정원수, 공원수, 군식 조경에 이용된다. 국내에서는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과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일원, 경상북도 의성군 등에서 특산품으로 매년 출하하고 있다.



〈그림 2-13〉 산수유

경북의 산수유 생산량(2002년 기준)은 43.8ton으로 전국 생산량 395.6ton의 11.0%를 차지하고 있다.

■ 오미자

오미자나무는 쌍떡잎식물로서 이판화군 미나리아재비목 목련과의 낙엽덩굴식물이다. 이 나무는 습기가 적당하고 비옥한 산골짜기에 무더기로 자라는 만경류로서 열매가 다섯 가지 맛을 낸다고 하여 오미자라 한다. 나무로는 쓸모가 적지만 열매가 약으로 쓰이는 향토 약용수종이다.



〈그림 2-14〉 오미자

경북의 오미자 생산량(2002년 기준)은 46.0ton으로 전국 생산량 181.5ton의 25.3%를 차지하고 있다.

■ 고로쇠 나무

고로쇠나무는 단풍나무과의 나무이다. 나무의 모양은 곧으며 웅대하게 퍼지고, 껍질은 회청색이다. 나뭇가지는 회황색이며 털이 없고 얇게 갈라진다. 이른 봄(2~3월)에 수액을 채취하며, 흉고(가슴높이)의 20cm에서 약 20ℓ의 양이 추출된다. 채취한 수액은 위장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으며, 최근 수액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인기가 많

다. 가을의 황색 단풍은 매우 관상가치가 높아 경관수나 녹음수로 적당하다. 수형으로 보아 가로수나 풍치수로 식재하기에 적당한 나무이다.

경북의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박달나무 등 수액 총생산량(2002년 기준)은 152.5천ℓ으로 전국 생산량 3,218.4천ℓ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15〉 고로쇠나무

■ 두릅 나무

두릅나무는 낙엽활엽 관목으로 2~3m까지 자란다. 전국 산야의 척박한 양지와 전석지에 군생하며, 나무 전체에 예리한 가시가 많다. 특히 습기가 있고 토심이 깊은 곳에서 왕성하다.

봄철 새순은 건강식품으로 대단히 인기를 얻고 있으며 매우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일본에 수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경북의 두릅 생산량(2002년 기준)은 152.9ton으로 전국 생산량 1,823.4ton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16〉 두릅나무 순

제3절 지역별 향토유실수종 생산 현황

1. 재배수종

■ 밤, 호도, 대추

경북지역의 밤 생산량(2002년 기준)은 705.0ton이며, 이중에서 23.9%인 168.6ton을 청도군에서 생산되었고, 다음으로 상주시 97.0ton, 고령군과 성주군이 각각 68.4ton, 68.1ton, 울진군 42.6ton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호도는 경북에서 214.7ton이 생산되었는데, 김천시가 84.6ton으로 경북의 39.4%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예천군 30.3ton, 상주시 23.6ton, 문경시 15.5ton, 봉화군 13.1ton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추는 경북지역에서 5,267.1ton이 생산되었으며, 이중에서 경상사에서 전체의 66.0%인 3,476.0ton이 생산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청도군 806.5ton, 군위군 339.8ton, 청송군 164.1ton, 경주시 114.8ton 등의 순이었다.

〈표 2-2〉 밤, 호도, 대추 생산 현황

(단위 : kg, %)

구분 (순위)	밤			호도			대추		
	시·군	생산량	구성비	시·군	생산량	구성비	시·군	생산량	구성비
	경북	705,043	100.0	경북	214,716	100.0	경북	5,267,115	100.0
1	청도군	168,630	23.9	김천시	84,624	39.4	경산시	3,476,064	66.0
2	상주시	97,016	13.8	예천군	30,327	14.1	청도군	806,525	15.3
3	고령군	68,470	9.7	상주시	23,623	11.0	군위군	339,868	6.5
4	성주군	68,100	9.7	문경시	15,561	7.2	청송군	164,140	3.1
5	울진군	42,654	6.0	봉화군	13,123	6.1	경주시	114,870	2.2
6	문경시	36,827	5.2	안동시	10,161	4.7	의성군	60,399	1.1
7	김천시	28,532	4.0	영주시	8,653	4.0	봉화군	55,405	1.1

자료 :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www.foa.go.kr), 2002.

■ 잣, 뽕은 감, 은행

경북지역의 잣 생산량은 26.4ton이며, 경주시에서 14.5ton이 생산되어 전체의 54.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영덕군 3.5ton, 봉화군 2.5ton, 예천군 1.4ton, 영양군 1.1ton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뽕은 감은 경북지역의 생산량은 29,170.8ton이며, 이 중에서 청도군이 20,629.9ton으로 경북의 70.7%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상주시 6,524.2ton, 김천시 448ton, 의성군 406ton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의 은행 생산량은 51.8ton이며, 이 중 영주시에서 경북의 15.2%인 7.9ton이 생산되었다. 다음으로 상주시 6.9ton, 예천군 5.9ton, 문경시 4.9ton, 의성군 3.7ton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잣, 뽕은 감, 은행 생산 현황

(단위 : kg, %)

구분 (순위)	잣			뽕은 감			은행		
	시·군	생산량	구성비	시·군	생산량	구성비	시·군	생산량	구성비
	경 북	26,442	100.0	경 북	29,170,804	100.0	경 북	51,883	100.0
1	경주시	14,500	54.8	청도군	20,629,900	70.7	영주시	7,909	15.2
2	영덕군	3,520	13.3	상주시	6,524,256	22.4	상주시	6,947	13.4
3	봉화군	2,491	9.4	김천시	448,400	1.5	예천군	5,957	11.5
4	예천군	1,443	5.5	의성군	406,920	1.4	문경시	4,942	9.5
5	영양군	1,100	4.2	안동시	223,164	0.8	의성군	3,758	7.2
6	청도군	750	2.8	울진군	173,617	0.6	봉화군	3,730	7.2
7	울진군	750	2.8	예천군	138,665	0.5	안동시	3,535	6.8

자 료 :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www.foa.go.kr), 2002.

2. 일반수종

일반수종에는 도토리, 산딸기, 머루, 다래, 산초, 초피 등이 있다.

■ 도토리, 산딸기, 머루

도토리 생산량은 경북에서 182.6ton이 생산되었으며, 이중에서 의성군이 30.3ton을 생산하여 전체의 16.6%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예천군 21.3ton, 안동시 16.2ton, 상주시·경주시 13.9ton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의 산딸기 생산량은 96.6ton이며, 이중 포항시에서 전체의 96.1%인 92.8ton이 생산되었으며, 다음으로 봉화군 0.6ton, 경주시 0.5ton, 문경시 0.4ton, 영덕군 0.3ton 등의 순을 차지하였다.

경북지역의 머루 생산량은 67.4ton이며, 이중에서 봉화군이 경북 전체의 43.1%인 29.0ton을 생산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영양군 24.1ton, 영주시 4.3ton, 문경시 4.1ton, 울진군 2.5ton 등의 순이었다.

〈표 2-4〉 도토리, 산딸기, 머루 생산 현황

(단위 : kg, %)

구분 (순위)	도토리			산딸기			머루		
	시·군	생산량	구성비	시·군	생산량	구성비	시·군	생산량	구성비
	경북	182,685	100.0	경북	96,630	100.0	경북	67,404	100.0
1	의성군	30,387	16.6	포항시	92,815	96.1	봉화군	29,060	43.1
2	예천군	21,302	11.7	봉화군	660	0.7	영양군	24,180	35.9
3	안동시	16,225	8.9	경주시	580	0.6	영주시	4,385	6.5
4	상주시	13,943	7.6	문경시	404	0.4	문경시	4,133	6.1
5	경주시	13,900	7.6	영덕군	372	0.4	울진군	2,535	3.8
6	군위군	11,280	6.2	영양군	330	0.3	경주시	710	1.1
7	문경시	10,034	5.5	예천군	322	0.3	포항시	709	1.1

자료 :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www.foa.go.kr), 2002.

■ 다래, 산초, 초피

경북지역의 다래 생산량은 총 4.8ton이며, 이중에서 봉화군은 경북전체의 16.6%인 0.77ton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고, 다음으로 예천군 0.60ton, 울진군 0.47ton, 영주시

0.43ton, 포항시 0.40ton 등의 순이었다.

산초 생산량은 2002년 경북에서 총 7.6ton이 생산되었으며, 이중에서 봉화군이 전체의 18.4%인 1.4ton을 생산하였다. 다음으로 칠곡군(14.4%), 문경시(13.2%), 의성군(8.0%) 등의 순이었다.

경북의 초피 생산량은 총 14.9ton이며, 이중에서 울진군은 58.6%인 8.7ton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다. 다음으로 영덕군 2.3ton, 경산시와 포항시 각각 1.0ton씩, 청도군 0.66ton 등이 생산되었다.

〈표 2-5〉 다래, 산초, 초피 생산 현황

(단위 : kg, %)

구분 (순위)	다래			산초			초피(제피)		
	시·군	생산량	구성비	시·군	생산량	구성비	시·군	생산량	구성비
	경북	4,827	100.0	경북	7,664	100.0	경북	14,915	100.0
1	봉화군	770	16.0	봉화군	1,410	18.4	울진군	8,740	58.6
2	예천군	609	12.6	칠곡군	1,100	14.4	영덕군	2,360	15.8
3	울진군	475	9.8	문경시	1,015	13.2	경산시	1,053	7.1
4	영주시	430	8.9	의성군	612	8.0	포항시	1,042	7.0
5	포항시	409	8.5	군위군	533	7.0	청도군	668	4.5
6	경주시	340	7.0	울진군	526	6.9	경주시	440	3.0
7	안동시	326	6.8	상주시	511	6.7	성주군	225	1.5

자료 :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www.foa.go.kr), 2002.

3. 약용수종

■ 산수유, 오미자, 독활

약용수종에는 산수유, 오미자, 독활(땅두릅) 등이 있다.

경북의 산수유 생산량은 총 43.8ton이며, 이중에서 의성군은 전체의 28.9%인 12.6ton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다. 다음으로 봉화군 11.5ton, 문경시 10.1ton, 군위군 1.6ton, 포항시 1.2ton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 방안

경북의 오미자 생산량은 총 46.0ton이며, 이중에서 문경시에서 전체의 68.6%인 31.5ton이 생산되었다. 다음으로 상주시 7.7ton, 의성군 1.7ton, 봉화군 1.4ton 예천군 1.0ton 등의 순이었다.

경북의 독활(땅두릅) 생산량은 8.8ton이며, 이중에서 울릉군이 전체의 90.1%인 8ton이 생산되었다. 다음으로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등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생산량은 많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산수유, 오미자, 독활 생산 현황

(단위 : kg, %)

구분 (순위)	산수유			오미자			독활(땅두릅)		
	시·군	생산량	구성비	시·군	생산량	구성비	시·군	생산량	구성비
	경북	43,832	100.0	경북	46,006	100.0	경북	8,880	100.0
1	의성군	12,681	28.9	문경시	31,568	68.6	울릉군	8,000	90.1
2	봉화군	11,552	26.4	상주시	7,700	16.7	영주시	470	5.3
3	문경시	10,132	23.1	의성군	1,750	3.8	봉화군	160	1.8
4	군위군	1,640	3.7	봉화군	1,410	3.1	예천군	100	1.1
5	포항시	1,260	2.9	예천군	1,014	2.2	성주군	70	0.8
6	영천시	1,240	2.8	울진군	1,005	2.2	안동시	40	0.5
7	상주시	970	2.2	김천시	912	2.0	영천시	40	0.5

자료 :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www.foa.go.kr), 2002.

4. 수액수종

수액을 생산하는 수종으로는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박달나무 등이 있다. 경북의 수액 생산량은 총 152.5천ℓ이며, 이중에서 포항시는 57.2천ℓ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성주군 31.9천ℓ, 영양군 16.5천ℓ, 청도군 15.5천ℓ, 영천시 10.8천ℓ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종별 보면, 고로쇠나무 수액은 100.3천ℓ로 전체 수액 생산량의 69.0%를 차지한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포항시 57.2천ℓ, 청도군 15.5천ℓ, 영양군 13.3천ℓ, 영천시 10.8천ℓ, 영덕군 5.0천ℓ 등이다.

자작나무의 수액 생산량은 12.3천ℓ이며, 이중 경상시에서 6.0천ℓ가 생산되어 가장

많았고, 경주시 3.2천 ℓ , 성주군과 고령군이 각각 1.2천 ℓ 씩 생산되었다.

박달나무의 수액 생산량은 총 31.7천 ℓ 이며, 이 중에서 성주군과 군위군이 각각 30.7천 ℓ , 1.0천 ℓ 씩이 생산되었다.

〈표 2-7〉 시·군별 향토 수액수종 생산 현황

(단위 : ℓ , %)

구분 (순위)	총 수액 생산량			고로쇠 수액			자작나무 수액			박달나무 수액		
	시·군	생산량	구성비	시·군	생산량	구성비	시·군	생산량	구성비	시·군	생산량	구성비
	경북	152,570	100.0	경북	105,360	100.0	경북	12,303	100.0	경북	31,707	100.0
1	포항시	57,220	37.5	포항시	57,220	54.3	경산시	6,000	48.8	성주군	30,707	96.8
2	성주군	31,910	20.9	청도군	15,500	14.7	경주시	3,200	26.0	군위군	1,000	3.2
3	영양군	16,500	10.8	영양군	13,300	12.6	성주군	1,203	9.8	-	-	-
4	청도군	15,500	10.2	영천시	10,845	10.3	고령군	1,200	9.8	-	-	-
5	영천시	10,845	7.1	영덕군	5,015	4.8	김천시	700	5.7	-	-	-
6	경산시	6,000	3.9	청송군	2,780	2.6	-	-	-	-	-	-
7	영덕군	5,015	3.3	김천시	650	0.6	-	-	-	-	-	-

주 : 영양군에서만 생산되는 거제수 수액 3,200 ℓ 는 제외되었음.

자료 :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www.foa.go.kr), 2002.

5. 기타 수종

기타 수종에는 두릅, 고사리, 죽순 등이 있다.

경북의 두릅 생산량은 총 152.9ton이며, 이중 경주시에서 경북의 18.9%인 28.9ton이 생산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고사리는 경북에서 총 196.2ton이 생산되었는데, 이중 경주시에서 전체의 12.0%인 23.1ton이 생산되었다. 마지막으로 경북의 죽순 생산량은 총 1.9ton이며, 이중 경주시에서 전체의 99.2%인 1.9ton이 생산되었다.

〈표 2-8〉 시·군별 기타 향토수종 생산현황

(단위 : kg, %)

구분 (순위)	두 립		고 사 리			죽 순			
	시·군	생산량	구성비	시·군	생산량	구성비	시·군	생산량	구성비
	경 북	152,989	100.0	경 북	192,684	100.0	경 북	1,915	100.0
1	경주시	28,900	18.9	경주시	23,100	12.0	경주시	1,900	99.2
2	울진군	23,337	15.3	영양군	22,680	11.8	영덕군	15	0.8
3	문경시	23,084	15.1	봉화군	21,977	11.4	-	-	-
4	봉화군	12,669	8.3	포항시	13,493	7.0	-	-	-
5	포항시	8,568	5.6	의성군	12,895	6.7	-	-	-
6	영양군	7,100	4.6	문경시	11,527	6.0	-	-	-
7	청도군	5,586	3.7	영주시	11,007	5.7	-	-	-

자 료 :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www.foa.go.kr), 2002.

지금까지 향토유실수종의 생산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포항시에서는 산딸기·수액(고로쇠나무 수액) 등, 경주시는 잣·고사리·죽순 등, 김천시는 호도, 영주시는 은행, 문경시는 오미자, 경산시는 대추, 의성군은 산수유·도토리, 영양군은 거제수, 청도군은 뽕은 감·밤, 성주군은 박달나무 수액, 봉화군은 머루·다래·산초 등, 울진군은 초피, 울릉군은 땅두릅 등이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에서 포항시 산딸기·나무 수액, 경주시 죽순, 문경시 오미자, 청도군 뽕은 감, 울진군 초피, 울릉군 땅두릅 등의 생산량은 타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대추와 감은 각각 61.7%와 56.2%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오미자(25.3%), 초피(21.4%), 호도(20.4%) 등으로 나타나 전국 생산량의 20%이상 생산되고 있으므로 잠재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9〉 시·군별 향토수종의 생산 실태

(단위 : %)

수 종	경북도내 생산량 1위 시·군	경북도내 생산량 2위 시·군	전국 생산 비중
밤	청도(23.9)	상주(13.8)	1.0
호 도	김천(39.4)	예천(14.1)	20.4
대 추	경산(66.0)	청도(15.3)	61.7
잣	경주(54.8)	영덕(13.5)	3.9
뽕은감	청도(70.8)	상주(22.4)	56.2
은 행	영주(15.2)	상주(13.4)	3.3
도토리	의성(16.6)	예천(11.7)	11.0
산딸기	포항(96.1)	봉화(0.7)	13.4
머 루	봉화(43.1)	영양(35.9)	11.7
다 래	봉화(16.0)	예천(12.6)	6.2
산 초	봉화(18.4)	칠곡(14.4)	16.8
초 피	울진(58.6)	영덕(15.8)	21.4
산수유	의성(28.9)	봉화(26.4)	11.0
오미자	문경(68.6)	상주(16.7)	25.3
수 액	포항(35.7)	성주(20.9)	4.7
두 립	경주(18.9)	울릉(15.3)	8.3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 방안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 실태와 사례

제 3 장



제 3 장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 실태와 사례

제1절 브랜드란

상표법에서는 “상표(brand)란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다.”¹⁰⁾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브랜드의 정의, 기능, 구성 요소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1. 브랜드의 정의

브랜드(brand)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다. 브랜드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매주(賣主)의 제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명칭·기호·디자인 등의 총칭이다¹¹⁾. Aaker(1991)는 “브랜드란 판매자 혹은 일단의 판매자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고 경쟁자들의 것과 차별하기 위하여 상용하는 독특한 이름이나 상징물(로고, 등록상표, 포장디자인)을 의미한다.”¹²⁾고 정의하였다.

Kotler(1994)는 “브랜드란 생산자나 판매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 용어, 기호, 상징 또는 이들의 결합체이다.”¹³⁾고 정의하였다.

미국마케팅학회(AMA)의 정의에 따르면 “브랜드란 소비자로 하여금 판매자 또는 판매자 집단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1)식별하고 경쟁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2)구별

10) 상표법 제2조 1항.

11) 네이버 백과사전(www.naver.com) 인용.

12) D.A 에이커, 「브랜드 자산의 관리」,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연구회 옮김, 나남출판사, 1992, p.26.

13) Phillip H. Kotler, Marketing Management: Analysis, Planning and Control, 8thed., Englewood Cliffs, NJ: prntice-Hall, Inc., 1994, p.40.

하도록 (3)의도된 이름, 용어, 기호, 심벌 디자인 또는 이것의 (4)조합”이라고 한다.¹⁴⁾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브랜드명(名),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기호, 디자인, 레터링 등을 브랜드 마크라고 한다. 또, 브랜드명, 브랜드 마크 가운데에서 그 배타적 사용이 법적으로 보증되어 있는 것은 상표(商標 : 트레이드 마크)라고 한다.

이상의 정의에서 브랜드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브랜드는 브랜드명 뿐만 아니라 표현, 상징물, 디자인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브랜드는 특정기업이 자신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경쟁자로부터 차별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⁵⁾

2. 브랜드의 기능과 구성요소

브랜드는 특정한 판매자의 제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므로 기업 또는 판매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브랜드의 기능을 대해 살펴보면,

첫째로는 브랜드는 기업 또는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형의 자산이며, 마케팅 활동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효과를 가진다. 둘째로는 기업 또는 판매자에게 수입을 가져다주는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경쟁사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나타내 주는 실체이다. 셋째로는 브랜드를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추상적인 단어로 표현된, ‘신뢰’나 ‘최고’와 같은 브랜드 컨셉을 구체적인 것으로 치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브랜드 구성요소(Brand Elements)로 브랜드네임, 로고, 심벌, 캐릭터, 슬로건, 징글 그리고 패키지 등이다. 구성요소(Elements)를 도형으로 치면 점, 선, 면으로, 이들이 결합되어 삼각형이나 원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는 것이다¹⁶⁾.

브랜드의 구성요소에 대해 내용은 <표 3-1>에서 간단하게 제시하였다.

14) <http://210.104.18.1/study/comr/kyw/>

15) 신현암 외 2명, 「브랜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삼성경제연구소, p.59.

16) ziikii@metabranding.com

〈표 3-1〉 브랜드의 구성요소

구 분	내 용
브랜드 네임	하나의 단어이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압축된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표현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에서 매우 좋음.
로고와 심벌 (Logo & ymbol)	브랜드 네임이 갖기 어려운 유연성과 전이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익함. 로고는 그림이므로 경쟁자의 모방에 특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
캐 리 크 터 (Character)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그대로 등에 업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 캐릭터는 브랜드를 친구로 느끼게 하고 친숙함을 줌. 브랜드 의인화를 캐릭터라는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서 이뤄내면 훨씬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접근 가능
슬 로 건 (Slogan)	브랜드에 대하여 기술적이거나 설득력 있는 정보를 "짧은 구절"로 표현하는 것. 짧은 브랜드네임에서 담기 어려운 표현과 그림인 로고나 심벌, 캐릭터에서 직접 드러내지 어려운 표현을 슬로건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
징 글 (Jingles)	브랜드이름을 음악적인 메시지로 표현한 것. 한 글자, 한 글자에 운율을 띄운 청정원의 청명한 소리나 엘라시틴의 탄력있는 소리는 제품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함.
패키지 디자인	제품의 용기나 포장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일에 관한 것을 말함. 패키지 디자인은 심미성뿐만 아니라 기능성을 고려해야 함. 기능성은 제품을 이동하거나 보관할 때 고객을 보호하고, 사용하기 편리함을 말함. 또한 패키지 디자인 자체에서 광고성과 구매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함.

제2절 지역브랜드화와 지역개발

1. 지역브랜드화의 의미

일반적으로 브랜드(brand)화란 공산품이나 식품의 가공품 판매에서는 기업 판매전략의 일환으로 일찍이 자리 잡은 개념이지만, 지역브랜드는 비교적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생소한 개념이다. 지역브랜드화의 의미는 상품명, 심벌마크, 생산자 또는 생산업체 명, 품질에 대한 보증 등을 명시하여 다른 경쟁상품과 차별화를 꾀하고 나아가서 상품의 우위성을 확보하는 유통행위로 정의되고 있다¹⁷⁾.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지역브랜드화는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공동

브랜드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이 연구에서의 ‘지역브랜드화’란 향토유실수종에 대한 상품명, 심벌마크, 품질보증 등 상품에 대한 브랜드를 구체화시키는 선행단계로서 시·군별 수종을 선정과 활용을 통한 지역별 대표성과 차별성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2. 지역브랜드의 필요성

첫째로는 지역자원의 상품화이다. 지역이나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브랜드화 할 경우, 이것이 하나의 관광요소가 되어 관광객을 유인이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축제, 전통문화, 문화유산 등을 활용하여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브랜드화 하는 것은 중요하다. 둘째로는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가령, 농·특산물, 축제 및 이벤트, 문화유산 등을 지역브랜드로 활용하면 지역주민은 지역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셋째로는 지역발전의 토대 구축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역브랜드화는 타 지역과 차별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지역소재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제휴하여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인재육성을, 공공기관 체계적인 지원을, 연구소에서 연구개발 등이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지역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3. 지역브랜드와 지역 경쟁력

지역브랜드는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브랜드이다. 기업브랜드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지역브랜드는 공생, 복지, 교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산업계, 그리고 지역주민이 협동하여 지역의 세일즈 포인트 (sales point)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지역 특성을 살린 매력적인 상품을 개발,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여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 브랜드 창출 또는 개발은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의 활성화에도 밀접한 연계가 있고, 나아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¹⁷⁾.

17) (사)농정연구포럼, 「제56회 정기월례세미나 결과보고서」, ‘축산물 브랜드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998.2, p.5.

제3절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 활용 실태

이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상징물, 슬로건, 시·군목(市·郡木), 농·특산물, 축제·이벤트 등을 살펴보고, 향토유실수종의 활용정도를 분석하였다.

1. 향토유실수종의 시·군 상징물 활용

■ 상징물(캐릭터·브랜드 등)

지방자치단체의 상징물은 심벌마크, 캐릭터, 농·특산물 브랜드 등이 있으며, 향토유실수종의 활용정도를 조사·분석하였다¹⁹⁾.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심벌마크는 23개 시·군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지역의 무궁한 발전을 의미하는 상징 기호 및 문자, 그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릭터는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설정해 두고 있으며, 특히, 영양군과 영덕군은 각각 4개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지리적 특성, 전통 문화, 농·특산물 등을 주제로 캐릭터화 하였다.

브랜드 명은 경주시를 비롯하여 7개 시·군이 가지고 있으며, 김천시 ‘푸름찬’, 영양군 ‘일월명품·영양한우’, 영덕군 ‘신돌석장군’, 울진군 ‘청나빌레’ 등이 있다. 특히 향토유실수종 및 농·특산물을 주제로 한 시·군은 김천시 ‘포도’(캐릭터), 영주시 ‘은행잎’(심벌마크), 상주시 ‘감’(캐릭터), 의성군 ‘마늘’(캐릭터), 영양 ‘고추’(캐릭터), 성주군 ‘참외’(캐릭터) 등이다.

청도군은 ‘청도우수농산물’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 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이고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청도군 내에서 생산되는 전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청도군청이 개발했다. 현재 사과, 배, 감 등 16개 농산물에 이 브랜드가 사용되고 있다.

18)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내 지역산업브랜드 제고를 통한 특화산업 육성방안 기초연구」, 2001, p.14.

19) 이 절에서 제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상징물은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2003.12 기준).

〈표 3-2〉 지역별 캐릭터 및 브랜드 현황

시·군	심벌마크 유무	캐릭터명	브랜드		비고
			상표	네임	
포항시	○	-	-	-	
경주시	○	○	○	경주	
김천시	○	농약, 포도캐릭터 토미, 토비	○	푸름찬	포토(캐릭터)
안동시	○	안동양반, 안동선비	시지정 공동브랜드	-	
구미시	○	거북이캐릭터(토미)	-	-	
영주시	○	선비촌, 선돌이	-	-	은행잎(심벌마크)
영천시	○	-	-	-	
상주시	○	감돌이, 감순이	-	-	감(캐릭터)
문경시	○	출사동이	-	-	
경산시	○	베푸리	-	-	
군위군	○	장군이	-	-	
의성군	○	의동이	-	-	마늘(캐릭터)
청송군	○	솔할배, 솔초롱	○	-	소나무(캐릭터)
영양군	○	달낭자, 해도령, 남이장군, 꼬미	○	일월명품 영양한우	고추(영양)
영덕군	○	키니와 토니, 대개랑, 영복 이와 덕승이, 신돌석 장군	○	신돌석장군	군마스코트
청도군	○	-	청도우수농산물	-	
고령군	○	가야돌이	-	-	
성주군	○	참돌이	-	-	참외(캐릭터)
칠곡군	○	호이	-	-	
예천군	○	효도이와 효심이	-	-	
봉화군	○	-	-	-	
울진군	○	피오	○	청나빌레	
울릉군	○	-	-	-	

주: 해당 시·군의 브랜드 현황 조사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참조하였음.

■ 슬로건 · 비전

시·군별 슬로건 및 비전을 살펴보면, 경주 ‘가장 살고 싶은 경주’, 김천시 ‘밝은 미래, 푸른 도시, 새로운 김천’, 안동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영주 ‘선비의 고장’, 영천 ‘충효의 고장’, 상주 ‘전원도시’ 등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많은 시·군에서 제시한 슬로건은 구체적이지 못하며, 인근 시·군과 차별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에 성주 ‘성산가야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 세계적인 명물 성주참외’, 울릉군 ‘신비의 섬’ 등은 지역이미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보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역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연상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표 3-3〉 시·군별 슬로건

시·군	슬로건	비고
포항시	제2의 영일만 기적, 첨단과학도시 포항	
경주시	가장 살고 싶은 경주	
김천시	밝은 미래, 푸른 도시, 새로운 김천	
안동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꿈과 희망과 미래의 도시	
구미시	젊은 도시, 열린 미래, 디지털 구미 젊고 활기찬 일렉트로피아 구미	
영주시	선비의 고장, 영주	
영천시	충효의 고장, 영천	
상주시	전원도시 상주	
문경시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푸른 청정 녹색도시	
경산시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	
군위군	희망찬 군위에서... 살기 좋은 고장	
의성군	의(義)와 예(禮)의 고장	
청송군	푸르고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신선세계 청송	
영양군	밝은 미래, 자치경영, 푸른 영양	
영덕군	21세기 환태평양시대를 이끌어가는 지역세계화의 주역	
청도군	자연의 깨끗함이 살아 숨 쉬고 태고의 맑고 푸르름이 간직된 곳 청도	
고령군	전통과 문화의 고장	
성주군	성산가야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 세계의 명물 성주참외, 선비의 고장	성주참외
칠곡군	첨단 도·농 복합 도시, 희망찬 칠곡 11만 군민과 함께	
예천군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	
봉화군	태고의 멋을 간직한 산천 봉화	
울진군	-	
울릉군	신비의 섬, 울릉	신비의 섬

주 : 슬로건은 해당 시·군 홍보팸플렛,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였음.

■ 시·군 지정나무

경북의 23개 시·군에서 지정하고 있는 나무는 은행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박달나무, 감나무, 오동나무, 후박나무 등이다. 수종별로 보면, 은행나무는 김천, 안동, 영주, 영천, 경산, 성주, 칠곡, 예천 등 8개 시·군에서 지정하고 있다. 소나무(곰솔, 춘양목 등 포함)는 경주,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울진 등 6개 시·군에서 지정하였다. 느티나무는 구미, 군위, 의성 등 3개 시·군이며, 감나무는 상주, 청도 등 2개 시·군에서 지정하였다.

향토유실수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영주의 은행나무, 문경의 박달나무, 영덕의 곰솔, 청도의 감나무, 봉화의 춘양목, 울진의 울진소나무, 울릉의 후박나무 등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종을 지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은행나무의 경우, 지역 특성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시·군별 지정 수목 및 꽃

구분	시목	시화	구분	군목	군화
포항시	해송	장미	청송군	소나무	사과꽃
경주시	소나무	개나리	영양군	소나무	함박꽃(작약)
김천시	은행나무	진달래	영덕군	곰솔	복숭아꽃
안동시	은행나무	매화	청도군	감나무	철쭉꽃
구미시	느티나무	개나리	고령군	오동나무	철쭉꽃
영주시	은행나무	철쭉꽃	성주군	은행나무	매화
영천시	은행나무	장미	칠곡군	은행나무	매화
상주시	감나무	장미	예천군	은행나무	목련
문경시	박달나무	철쭉꽃	봉화군	춘양목	산목련
경산시	은행나무	목련	울진군	울진소나무	매화
군위군	느티나무	개나리	울릉군	후박나무	동백꽃
의성군	느티나무	백일홍			

주: 해당 시·군의 브랜드 현황 조사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참조하였음.

2. 향토유실수종의 농·특산물 지정 실태

농·특산물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상품화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향토유실수종과 관련한 농·특산물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상주시(꽃감, 홍화씨, 감식초 등), 문경시(감식초, 꽃감 등), 경산시(대추 등), 의성군(홍화, 산수유, 대추, 꽃감 등), 청송군(약대추), 영양군(일월산 산머루, 고로쇠수액 등), 영덕군(영덕단감), 청도군(청도반시), 칠곡군(홍화씨, 단감, 감식초 등), 봉화군(약대추, 산머루주 등)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유실수종 관련 특산물은 대부분 감식초, 꽃감, 대추, 머루 등이다.

〈표 3-5〉 시·군별 농·특산물 현황

시·군	농·특산물	비고 (향토수종)
포항시	과메기, 피데기 오징어, 부추, 시금치, 약전참기름, 영지차, 케일과립, 표고버섯, 포항해맞이빵	
경주시	두산명주, 서라벌 향수, 넥타이, 교동법주, 황남빵, 감포멸치젓, 감포미역, 안강찰토마토, 산내더덕, 감포전복, 팔우정해장국거리, 화산불고기 단지, 신라토기, 모조금관, 기마인물토기, 은잔	
김천시	포도, 자두, 양파, 감자, 참외, 방울토마토, 배, 팽이버섯, 재래식 메주, 지레돼지, 과하주, 김천징장, 모필장	
안동시	안동한우, 안동사과, 안동참외, 안동쌀, 안동소주, 안동고추, 하회탈, 안동포, 풍산한지, 안동딸기, 안동포도, 빙어, 안동 단호박, 안동 영지버섯, 안동 산약(마), 안동 간고등어, 안동 풍산김치, 안동 전통장류, 안동 상황버섯, 안동 느타리버섯, 장뇌삼	
구미시	금량한지공예, 선산약주, 무을공방, 죽향, 흙빛도방, 옛멋(판매점), 구미특수미, 화훼류, 금오산된장, 금오산록밭고구마, 금오산메론, 금오산참외, 금오산포도, 금오산인삼, 금오산양송이, 금오산수박, 금오산오이, 방울토마토, 땅콩, 사과, 표고버섯, 금오산배, 산촌토종돼지, 금오산맥우	
영주시	풍기인삼, 영주사과, 영주한우, 풍기인견, 마·하수오, 소백산오정주, 단산포도, 선비촌한과, 순흥메주, 소백산네프란, 맛돈이	
영천시	전통목공예, 전통신라토기, 포도, 사과, 복숭아, 배, 양파, 버섯, 토마토, 오이, 화훼, 두레한우, 토종돼지	
상주시	꽃감, 꿀배, 쌀, 포도, 사과, 오이, 청정채소, 팽이버섯, 문장대산채, 인삼, 약용버섯, 문장대더덕, 홍화씨, 벌꿀, 순한우, 누에가루, 환, 동충하초, 청화산액상차, 한울과일즙, 우리밀가루, 밀국수, 감식초, 삼미단무지, 전통명주, 민속공예품	꽃감 홍화씨 감식초
문경시	문경사과, 호산춘, 오이지, 청국장, 취즙, 버섯류, 문경한과, 빙어, 쌍샘배, 분재, 도자기, 수석, 꿀, 포도, 청려장, 문경한우, 곡류, 동로고추, 감식초, 약들돼지, 산초고추, 문경꽃감, 된장, 짚공예품, 활성탄돼지고기, 환, 한백주, 전통한지	감식초 문경꽃감
경산시	대추, 포도, 복숭아, 참외, 자두, 깻잎, 묘목	대추
군위군	사과, 오이, 양파, 마늘, 화훼, 황금배	

항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 방안

시·군	농·특산물	비고 (항토수종)
의성군	의성 맛사과, 의성 태양초 고추, 의성 찰쌀·보리쌀, 홍화, 의성포도, 작약, 느타리버섯, 의성수박, 의성참외, 의성(사곡)감, 의성자두, 의성산수유, 의성도토리가루, 의성숨쉬는 김치(안계), 산마을김치, 능금주, 풀의정, 흑염소육골죽, 의성대추, 시골된장메주, 의성마늘소, 장춘메주·된장·간장, 의성옛기름참기름, 비봉산호박죽·뱀장어, 금자라엑기스, 의성술밭떡마을, 안평고춧가루, 의성배, 의성 느타리버섯, 사과고추장, 사과맛정수·사과쌀조청, 의성마늘고추장, 의성복수박, 의성오이, 의성딸기, 의성가지, 참봉어 재래식 소주, 의성신평곶감, 보리장맛, 의성참마늘김치 양념김치	홍화, 산수유, 대추, 곶감
청송군	꿀사과, 세척고추, 청결고추가루, 청송콩나라, 약대추, 꿀배, 포도, 수경채소, 오이, 곰취나물, 주왕산한우, 벌꿀, 토종꿀, 상황버섯,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산나물김치, 전통발효식품, 청송블로주, 솔잎엑기스, 꽃들, 한지, 옹기, 목공예, 천연허브, 야생화	약대추
영양군	영양고춧가루, 영양고추, 영양더덕, 영양사과, 영양참배, 영양복숭아, 영양포도, 영양수박, 고랭지채소(무, 배추), 버섯, 일천궁, 영양잡곡, 담배, 영양한우, 자연농법돼지, 일월산약염소, 한방유정란, 영양벌꿀, 산나물, 일월산 산머루, 영양천마, 영양송이, 고로쇠수액, 자연산 상황버섯, 분재 및 야생화 분경	일월산 산머루, 고로쇠수액
영덕군	영덕대게, 불가사리쌀, 영덕오리쌀, 키토산칠보미, 부추, 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영덕 꿀배, 영덕 단감, 영덕 포도, 영덕복숭아, 영덕사과, 타우링 계량, 명태얼치, 영덕 돌미역, 영덕 멸치, 오십천 은어, 오징어, 피데기, 청어 과메기, 민속김치(실비식품), 민속죽염, 방가골식품, 도계한지, 영덕 수석, 오천옹기	영덕단감
청도군	청도 복숭아, 청도반시, 청정미나리, 풍각고추, 팽이버섯, 표고버섯, 임금딸기	청도반시
고령군	전통도자기, 고령한와, 쌍림딸기, 우곡그린수박, 성산참외, 개진감자	
성주군	성주참외, 성주수박, 가야산 한방사과, 가야산 한방배, 착색단 고추, 성주완숙 방울토마토·토마토, 무지개오이, 가야산 버섯, 포동포크, 참외초롱, 태호(항아리)	
칠곡군	지천포도, 벌꿀참외, 버섯, 복삼 방울토마토, 사과, 장미, 단감, 유학산 청정미나리, 취 아가리쿠스, 홍화씨, 백합, 국화, 금종쌀, 금남오이, 툄림, 가산산성쌀, 배, 분재, 꿀짜쌀, 황학촌호박꿀증탕, 발효식품참멸치젓, 김치, 딸기잼, 송광설증매, 포도주스, 송오된장, 감식초, 솔란, 산골메추리알, 꿀이네, 안상규벌꿀, 황학산토봉꿀, 유학한우고급육, 보온덮개	홍화씨, 단감, 감식초
예천군	건조누에분말, 예천밤고구마, 예천건고추, 금당꿀, 금싸라기참외, 누에동충하초, 느타리버섯, 땅콩, 마늘, 명품쌀, 배, 사과, 상황버섯, 양난, 영지버섯, 응골진잡곡, 쪽파, 참기름, 참우, 토마토, 표고버섯, 학가산메주, 호도, 맥반쌀	
봉화군	봉화송이, 봉화사과, 봉화약대추, 봉화고추, 복수박, 청량산재산수박, 봉화딸기, 봉화 친환경쌀, 봉화한약우, 고랭지화훼, 전통유기, 닭실한과, 봉화선주, 소천엿술, 산머루주, 디딜방아고춧가루, 봉화벌꿀, 장	봉화약대추 산머루주
울진군	울진송이, 울진대게, 고포미역, 온정계르마늘쌀, 취나물, 복수박, 오징어, 은멸치, 참문어, 골뱅이, 울진 고초령된장·간장·고추장·메주	
울릉군	오징어, 호박엿, 산나물, 울릉약소, 돌미역/돌김	

주 : 농·특산물 현황은 해당 시·군 홍보팸플렛,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였음.

3. 향토유실수종의 축제·이벤트 및 향토음식 활용

축제와 이벤트는 지역의 고유문화를 전승·발전시켜 현대문화와 결합,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경북의 대표적인 축제로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비롯하여 청도소싸움축제, 한국의 술과 떡잔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풍기인삼축제, 봉화송이축제 등이다. 지역별 향토문화행사 및 지역특산물과 연계된 축제, 하회별신굿탈놀이, 동해안별신굿, 차전놀이 등 전승가치가 큰 민속놀이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활용이 가능하다. 향토유실수종과 연관된 축제는 황악산 산채음식축제(김천시), 산수유축제(의성), 감축제(청도), 거자약수축제(성주) 등이 있으며, 향토음식은 도토리무침, 꿀밤느태 이상(영천), 도토리찰편(의성), 두릅적(영양), 매실 장아찌, 매실정과 이상(울진) 등이 있다.

〈표 3-6〉 지역 축제 및 이벤트 현황

시 군	행 사 명	행사장소	행사기간	내방객	향토수종 관련
포항시	반딧불 축제	죽장면	7~9월	2천명 정도	
	과메기 축제	북부해수욕장	12월 중순	5만명 정도	
	영일만 축제	포항시내	10월 초순		
	해맞이 축제	해맞이공원	12.31~1.1		
경주시	경주 버섯축제	경주실내체육관	4월 하순	2만명 정도	
	한국의 술과 떡 축제	보문단지내	3월말~4월 초		
	신라문화제	경주시내	10월 초순		
	안강 단감축제	안강읍일원	10월중	2만명 정도	○
김천시	김천 포도축제	환경사업소잔디공원	8~9월경	1만명 정도	○
	황악산 산채음식 축제	환경사업소잔디공원	4~5월경	1만명 정도	※
	지레돼지 옛날장터재현	지레면 교리	10월	5천명 정도	
안동시	김천예술제		10월 초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안동시내, 하회	10월 초		
구미시	안동민속 축제		10월 초		
	한여름밤 음악회		7월		○
영주시	구미 축제		10월 초순		○
	소백산 철쭉제	소백산국립공원	5.25~5.26	6만명 정도	
	풍기인삼 축제	풍기인삼 시장	9월 중순	18만명 정도	
	단산포도 축제	단산국교 내	9월 중순	1천명 정도	○
	부석사과 축제	농협공판장내	10월 중순	2천명 정도	○
	소백문화제		10월 중순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 방안

시 군	행 사 명	행사장소	행사기간	내방객	향토수종 관련
영천시	영천 포도축제	영천일원	8.24~8.25	15천명 정도	○
	영천문화예술제	영천일원	10월 중순		
	최무선장군 추모제		4월 중		
상주시	상주문화제	상주일원	10월 중		
	상주자전거 축제	상주일원	9월 말		
문경시	전통 찻사발 축제	새재도립공원	10월 중	2만명 정도	
	문경문화제	문경일원	10월 중순		
경산시	경산 묘목 축제	시민운동장	3월 중	1만명 정도	○
	자인단오-한장군 놀이	자인면 일원	6월 중		
	갯바위 소원 축제	와촌면 일원	10월		
군위군	군위문화제	군위읍 일원	10월 중		
의성군	의성 마늘판매 촉진 대회	마늘시장	7월하순경	1만명 정도	
	메뚜기잡기대회	구천면 미천들	10.11(예정)	1천명 정도	
	군민화합 대축제	종합운동장	10.9일(예정)	2만명 정도	
	사곡 산수유 축제	사곡면사무소	3월말경	1천명 정도	※ ○
청송군	주왕산수달래제	주왕산일원	5월 중		
	청송문화제	청송읍 일원	10월 중		
영양군	영양고추 문화축제	군민회관	10월경	1만명 정도	
	해맞이 축제	일월산 일지봉	연초	2만명 정도	
영덕군	해맞이 축제	삼사 해상공원	12.31~1.1	7만명 정도	
	대게축제	강구면일대	4월경	5만명 정도	
	영덕해변축제	장사대진 등 해수욕장	7.28~8.4	5만명 정도	
	영덕오십천 은어축제	영덕 오십천변	7.28~7.29	1만명 정도	
청도군	청도 소싸움축제	서원천변	3월 초순경	60만명 정도	
	청도 감축제	청도천 둔치	9월말경	2만명 정도	※ ○
고령군	대가야 축제	고령 국악당	10.8~10.11	3만명 정도	
	딸기 축제	쌍림면 일대	3.23~3.24	3천명 정도	
	수박 축제	우곡면 일대	5.25	2천명 정도	
성주군	가야산야생화 축제	가야산일원	5월 중		
	거자약수 축제		4월 초순		※
칠곡군	아카시아 벌꿀축제	지천 신동재	5월초	10만명 정도	
	야생화작품 전시회	농업기술 센터	미정	3천명 정도	
봉화군	봉화송이 축제	봉화 내성천	9월중	10만명 정도	
	봉화은어축제	내성천고수부지	8월중	10만명 정도	
	봉성돼지 숯불요리축제	봉성초교정	7월중	1만명 정도	
	이나리 강변축제	명호 운곡천	8월중	1만명 정도	
울진군	울진 송이축제	덕구온천광장	10월초순	2만명 정도	
	평해 남대천단오제	평해 남대천	6월중	2천명 정도	
	울진 백암온천제	백암온천내	8월중	5만명 정도	
	울진 대게축제	후포면 광장	3월중	5만명 정도	
울릉군	우산문화제	울릉읍일원	10월중	2천명 정도	
	오징어축제	저동항일대	8.월중	6천명 정도	

〈표 3-7〉 시·군별 향토음식 현황

시·군	향 토 음식	비 고 (향토수종)
포항시	밥식혜, 부추해물잡채, 시금장, 물회,	
경주시	부편, 사연지, 사과수정과, 버섯색편, 느타리버섯장아찌	
김천시	장바우감자탕, 과하주, 갱시기, 찹쌀수제비, 황악산 산채모듬	
안동시	헛제사밥, 안동식혜, 두루치기국, 건진국수, 마국수	
구미시	애탕국, 송기떡, 잉어찜, 석감주, 화전	
영주시	인산쇠고기말이, 풍기삼계탕, 순메밀냉면과 소백한우불고기, 인삼갈비, 메밀묵과 조밥	
영천시	도토리무침, 잉어찜, 다슬기국, 꿀밤느태	도토리무침 꿀밤느태
상주시	뽕두부 전골, 꿀밤시루떡, 뽕잎쟁반국수, 뽕잎김치, 폐백꽃감	
문경시	문경새재찹쌀약과, 새재묵조밥, 약돌돼지술찜, 문경한과 무지개송어비빔밥	
경산시	손닭국수, 콩나물회집, 염소고기전골, 염소탐, 모시떡	
군위군	호박차수수범벅, 돼지고기 약선갈비찜, 정과, 돼지고기 양념조림	
의성군	사과조청, 마늘고추장, 도토리찰편, 사과강점, 마늘산적	도토리찰편
청송군	산나물밥, 콩찰떡, 약수닭백숙, 안동꽃식혜, 산나물김치, 닭불고기	
영양군	두릅적, 집장, 더덕구이, 장떡, 산채닭국수, 어죽, 산채시루떡	두릅적
영덕군	은어간장구이, 대게탕, 화전, 가자미식혜, 생선어묵조림	
청도군	청도추어탕, 횃집나물, 석탄병, 감장아찌, 약식혜	
고령군	스무주, 감자경단, 딸기화채, 감자새우선구이	
성주군	모시송편, 참외정과, 가죽장아찌, 참외장아찌	
칠곡군	차시루떡, 차백설기, 차송편, 차절편, 송화다식, 다식, 송화밀수 솔잎강정, 송화송편	
예천군	보리감자밥과 팔잎나물, 청포묵, 태평추, 골짜지, 송구송편, 팔잎나물	
봉화군	송이돌솔밥, 수수풀떼기, 당귀장아찌, 은어주먹밥, 은어튀김양념조림	
울진군	매화장수쌀엿, 대게찜, 식혜모듬, 매실장아찌, 매실정과 청동오리한방백숙, 돛나물젓갈무침, 미역젓갈무침, 콩치진국수 광어미역국, 가리비구이, 오리구이, 염소수육	매실
울릉군	호박떡, 오징어순대, 홍합밥, 오징어내장국, 옥수수식혜	

자료 : 향토음식연구회(www2.rda.go.kr/food/korean/) 참조하였음.

제4절 향토유실수종의 브랜드화 사례와 시사점

1. 국내 사례

■ 천안 호도

호두나무는 중국이 원산으로 표고 400m이하 따뜻한 곳에 토심이 깊고 비옥한 골짜기나 하천변의 습기가 있는 비옥한 사질양토를 좋아하며 5월에 맺어 10월에 수확하고 우리시 광덕면 일대가 생육의 최적지이다.

광덕호두는 고려 충렬왕 16년(1290) 영밀공(英密公) 유청신(柳淸臣)이 원나라에 갔다가 왕가(王駕)를 모시고 돌아올 때 묘목과 열매를 가지고 와 천안시 광덕면에 식재한 것이 우리나라 호두의 시배지가 되었다. 관련식품으로 호두과자가 있다.



〈그림 3-1〉 천안의 특산물 호도

■ 공주 밤(깐밤)

차령산맥의 수려한 계룡산 주변에서 자연낙과한 알밤을 수확하여 육질이 단단하고 맛과, 색택, 저장력이 뛰어나 전국 제일의 명산물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선선별, 포장기를 이용하여 규격출하하고 있다.



〈그림 3-2〉 공주의 특산물 밤

■ 가평 잣

잣 생산량은 전국 평균적으로 약 748천kg 인데 그중 경기도의 생산량은 460천kg으로 약 61%를 차지한다. 가평군의 잣 생산량은 330천kg으로서 경기도 생산량의 약 72%를 차지하고 전국 총생산량의 45%를 차지할 만큼 잣의 고장이다.



〈그림 3-3〉 가평의 특산물 잣

■ 고창 복분자주

맛 좋은 복분자 열매만으로 빚은 술이 복분자 주이며 복분자는 나무 딸기의 일종으로 사전에는 장미과의 낙엽활엽교목으로 적혀 있다. 선운산의 명물인 복분자술은 부녀자들이 깊은 산중에서 공해를 모르고 자생한 복분자 열매를 6-9월께 채취하여 만든 술이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옹기그릇에 잘 밀봉하여 2-3년을 경과해야 그린미를 느낄 수 있으며 술빛 색깔은 아침에 함초롬이 핀 해당화처럼 맑고 빨갛게 물들어 있어 일찍부터 정력제로 각광받아 왔다.



〈그림 3-4〉 고창의 특산물 복분자

■ 예당 배

소비자에게 ‘예산 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수려한 주변 환경으로 유명한 예당저수지의 ‘예당’을 브랜드명으로 활용했다. 예산의 넓은 구릉지를 초록색으로 표현하고 예당저수지의 맑은 물과 높은 하늘을 가미해 풍요로운 이미지의 바탕 배경에 실물의 배를 삽입해 신선함과 깨끗함을 강조했다. 서울 경기 충남 전북 지역에 출하되고 있으며 예산농금 농협이 지난해 개발했다.

■ 장호원 복숭아

이천 지역의 기후는 복숭아 재배에 알맞아 이곳에서 생산되는 복숭아는 과실이 크며 황색을 띤 모양이 수려하고 당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특히 이곳 복숭아는 향기가 좋아 이천 지역을 대표하는 과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명과 품명을 연결해 브랜드로 만들었다. 경기동부과수농협이 '99년에 만들었으며 현재 1,000여 농가가 사용하고 있다.

■ 서천 단감

단감의 주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진영 단감이나 순천 단감에 비해 브랜드의 이미지가 약해 지역명을 활용해 서천 단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로 만들었

다. 잘 익은 단감의 사진과 브랜드명을 좌우에 대칭으로 만들어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구성했다. 서천단감영농조합법인이 올해 개발했으며 326곳의 농가가 활용하고 있다.

2. 외국 사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뉴질랜드의 사과·배 브랜드 'ENZA', 키위 브랜드 '제스프리', 미국 워싱턴주의 사과 브랜드 '워싱턴 애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된 오렌지 브랜드 '썬키스트', 이스라엘의 국가 농산물 브랜드 '카멜' 등이 성공적인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다²⁰⁾. 이 중에서 뉴질랜드의 사과·배 브랜드 'ENZA', 와 워싱턴주 '워싱턴 애플'을 소개한다.

■ 뉴질랜드, 사과·배 브랜드 'ENZA'개발

50개국 수출브랜드가 농산물의 신뢰와 가치를 높이는 사례는 외국에서 더 찾기 쉽다. 'ENZA(엔자)'는 뉴질랜드가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사과와 배의 브랜드다. 91년까지 뉴질랜드는 '뉴질랜드'란 국가 이름을 브랜드로 사용해 사과와 배를 수출했다. 그러나 '뉴질랜드'란 브랜드는 농산물의 품질과 관계없이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모든 사과와 배에 붙여졌기 때문에 고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는데도 실패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뉴질랜드 사과·배 유통국(ENZAFRUIT)'은 ENZA라는 짧고 기억하기 쉬운 브랜드를 개발했다. ENZA는 사과와 배를 크기·품질에 따라 다양하게 포장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뉴질랜드의 깨끗한 환경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수출에 박차를 가했다. 또 중간 상인을 없애고 해외 합작회사를 통해 직접 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유통 비용을 절감했다. 그 결과 ENZA는 지난해 50여 개국에 1200만 상자(18kg 기준)를 수출, 세계적인 사과·배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 워싱턴 애플

이 사과 브랜드는 주(州)정부 차원의 끊임없는 홍보가 성공의 요인이다. 1937년

20) 조선일보, 2002.10.03 인용

워싱턴 주지사는 ‘워싱턴주 사과 홍보 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위원회는 지역 사과 재배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사과의 광고와 판매 등을 전담했다. 현재 재배업자들은 한 상자당 25센트를 위원회에 기부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미국 전역에 유통망을 구축해 ‘워싱턴 애플’을 알리고 있다.

그 외에도 세계적 오렌지 브랜드인 ‘썬키스트’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작은 농협에서 시작했지만, 지역 브랜드를 거쳐 미국을 대표하는 농산물 브랜드로 성장했다.

3.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에 대한 시사점

경북의 23개 시·군은 다양한 이미지 및 상징물을 발굴하여 이를 지역브랜드화 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역 상징물 중 심벌마크는 전체 시·군에서 가지고 있으며, 캐릭터는 지역특성을 알리기 위해 지역 특산물을 이용하여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를 부각시켜 지역브랜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7개 시·군에서 사용하는 캐릭터는 주로 지리적 특성, 전통문화, 농·특산물을 주제로 하였다. 브랜드와 브랜드 명은 경주시를 비롯하여 7개 시·군에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김천시의 ‘푸름찬’, 영양군의 ‘영양한우’, 영덕군의 ‘신돌석장군’, 울진군의 ‘청나빌레라’ 등이다. 지금까지 시·군의 상징물, 슬로건 등을 토대로 향토유실수종 활용실태의 문제점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첫째, 향토유실수종 및 지역 농·특산물을 주제로 한 상징물을 사용하는 시·군의 비율이 너무 낮다. 대표적으로 김천시 ‘포도’(캐릭터), 상주시 ‘감’, 영주시 은행잎(심벌마크), 의성군 ‘마늘’, 영양군 ‘고추’, 성주군 ‘참외’ 등이다. 이것은 아직까지 지역경쟁력을 높이는데 브랜드 및 캐릭터의 인식이 낮아 상징물의 개발이 안 된 곳이다.

둘째, 슬로건·미래상의 경우에도 지역의 특성을 알리기보다는 막연한 이미지를 설정한 시군이 많다. 자연과 문화, 예술, 역사 등 막연하고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슬로건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가장 살고 싶은~’, ‘선비의 고장 ~’, ‘전원도시~’, ‘전통과 문화의 고장~’ 등이다.

셋째, 시·군을 나타내는 나무는 주로 은행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감나무 등이며, 은행나무는 8개 시·군이, 소나무는 6개 시·군, 느티나무 3개 시·군이 중복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역특성을 차별화 시키는데 효과가 낮을 것이다.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 방안

넷째, 지역 농·특산물은 시·군별로 다양하게 지정되어 있지만, 향토유실수종을 이용한 농·특산물은 꽃감, 감식초, 약대추, 산수유, 머루주 등 소수에 불과하다.

다섯째, 향토유실수종과 관련한 축제, 이벤트, 향토음식은 몇 개밖에 없다. 다만, 산수유 축제(의성), 거자약수 축제(성주), 감 축제(청도) 등이 있으나,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향토음식으로도 도토리무침, 두릅적 등이 있으나, 지역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향토음식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상징물, 농·특산물, 축제, 국내·외 사례 등을 기초로 하여 지역경쟁력 및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로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의 개발이다. 전북 무주군의 ‘자연의 나라, 반딧불이의 나라’와 전남 함평군의 ‘나비와 꽃의 세계’는 지역이미지 설정의 모범으로 꼽힌다. 무주군은 개똥처럼 흔한 벌레라는 뜻의 개똥벌레(반딧불이)를 지역이미지로 설정하고 관광자원화해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오도록 만들었다. 무주군은 반딧불이를 상표 등록하는 한편 지역특산물 브랜드에도 적극 활용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있다²¹⁾.

둘째로 명쾌한 지역이미지의 설정이다. 지역이미지가 명쾌하지 못한 지역은 공통적으로 이미지 중복, 막연하고 추상적인 단어 사용, 어려운 용어, 신뢰성 부족, 중얼거리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 같은 표현은 ‘딱 떠오르는’ 메시지 전달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구 600만 명의 중미 카리브해의 작은 나라 아이티는 빈곤과 미신이라는 얼룩진 국가이미지를 ‘미신과 신비가 가득한 무당의 나라 아이티’로 대전환시켜 성공한 케이스이다. ‘무당과 미신이 판치는 아이티’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아이티, 무당의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역전시켜 모험과 신비를 즐기려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셋째로 지역 특성과 이미지홍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향토유실수종을 선정·발굴하고 브랜드, 캐릭터, 축제 및 이벤트, 향토음식 등을 개발·육성하여 지역을 차별화 시킴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다양한 향토유실수종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수종의 개발과 선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1) 동아일보, 2003. 4. 27.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 방안

향토유실수종의 선정

제 4 장



제 4 장

향토유실수종의 선정

제1절 향토유실수종 선정 기준과 지표

1. 선정 기준

이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해당 시·군별로 적합한 향토유실수종의 선정이 필요하다. 향토유실수종의 선정을 위한 분석기준은 차별성(상품성), 인지성(생산의 질적 양적 측면), 관광자원성, 지역대표성(역사성) 등을 설정하였다.

- 인지성(생산성) : 이것은 향토유실수종과 얼마나 친숙한가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다시 말하면, 향토유실수종의 생산성으로,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역에서 위상을 측정하는 것이며,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 차별성(상품성) : 지역에서 생산되는 향토유실수종이 타 지역과 차별성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토유실수종을 지역 농·특산품으로 지정하여 지역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가를 파악한다.
- 관광자원성 : 향토유실수종을 관광자원으로 활용가능성을 파악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향토유실수종과 관련된 축제 및 이벤트, 향토음식 발굴, 관광농원 등의 정도를 파악한다.
- 지역대표성(역사성) : 향토유실수종이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 또는 얼마나 오래 동안 특정지역에서 자생·식재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향토유실수종을 지방자치단체의 상징물(캐릭터, 브랜드화, 시·군목, 시·군화 등)로 사용하는가를 파악한다.

2. 분석 지표

분석지표는 향토유실수종의 선정기준인 인지성, 차별성, 관광자원성, 지역대표성 등 선정기준을 세분화하여 지표를 설정하였다. 인지성의 지표는 생산량과 경북에서 차

지는 순위를, 차별성의 지표는 향토유실수종 관련 농·특산물의 지정 여부, 관광자원성의 지표는 관련 축제, 이벤트, 향토음식 등을, 대표성의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징물(심벌마크, 캐릭터, 브랜드, 시·군목, 시·군화) 등으로 하였다.

〈표 4-1〉 지역브랜드화를 위한 향토유실수종 선정 지표

구분		분석 요인		
		3점(○)	2점(△)	1점(×)
인지성 (생산성)	양적	해당 향토유실수종의 경북내 생산량이 50%이상인 경우	해당 향토유실수종의 경북내 생산량이 30%이상인 경우	10%이상
	질적	23개 시·군 중 해당 향토유실수종의 생산량이 2위 이내	23개 시·군 중 해당 향토유실수종의 생산량이 5위 이내	10위 이내
관광자원성		축제 및 이벤트, 향토음식 등이 향토유실수종과 관련이 2개 이상	축제, 이벤트, 향토음식 등이 향토유실수종과 관련이 1개 이상	기타
차별성 (상품성)		지역 농·특산품 중 향토수종과 관련된 상품의 2개 이상	지역 농·특산품 중 향토수종과 관련된 상품 1개 이상	기타
대표성 (역사성)		지자체의 캐릭터, 지정나무, 꽃, 브랜드 중에 향토유실수종과 관련이 2개 이상	지자체의 캐릭터, 지정나무, 꽃, 브랜드 중에 향토유실수종과 관련이 1개 이상	기타

제2절 시·군별 향토유실수종 선정 분석

향토유실수종을 선정하기 위한 분석은 경북의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수종은 밤, 호도, 대추 등 재배수종, 도토리, 산딸기, 머루 등 일반(자연)수종, 산수유, 오미자 등 약용수종, 기타로 나누어진다. 분석대상 수종은 총 19개 수종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해당 시·군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경북의 23개 시·군 중에서 생산량의 순위가 10위 미만일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포항시

포항시의 평가대상 수종은 밤, 대추, 산딸기 등 11개이다. 이중에서 산딸기, 고로쇠나무 수액 등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딸기는 지역 특화주 개발 및 향토축제 개최가 가능하여 지역홍보 및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다. 고로쇠 수액을 주제로 하여 이른 봄에 축제를 개최한다면 지역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2〉 포항시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향토유실수종	인지성(생산성)		관광자원성	차별성	대표성	계
	질적	양적				
밤	×					1
대추	×					1
산딸기	○	○				6
머루	×					1
다래	△					2
초피	△					2
수액	○	△				5
산수유	△					2
오미자	×					1
두릅	△					2
고사리	△					2

주) ○ = 3점, △ = 2점, × = 1점

■ 경주시

경주시의 평가대상 수종은 잣, 두릅, 죽순, 도토리, 산딸기 등 13개이다.

〈표 4-3〉 경주시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향토유실수종	인지성(생산성)		관광자원성	차별성	대표성	종합
	질적	양적				
대추	△					2
잣	○	○	△			8
뽕은감			×			1
은행	×					1
도토리	△					2
산딸기	△					2
머루	×					1
다래	×					1
초피	×					1
수액	×					1
두릅	○	×				4
고사리	○	×				4
죽순	○	○				6

주) ○ = 3점, △ = 2점, × = 1점

이중에서 잣, 죽순, 두릅, 고사리 등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 방안

향토수종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잣은 향토특산물로 지정이 가능하다. 또한 잣, 두릅, 고사리 등을 이용한 향토음식을 개발한다면,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훌륭한 관광 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천시

김천시의 평가대상 수종은 호도, 뽕은 감, 은행, 도토리, 산초, 오미자 등 9개이다. 이 중에서 호도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은 수종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은행, 뽕은 감의 순이다. 호도를 지역특산물로 지정하여 대표적인 명품으로 개발하고, 호도 관련 공원, 캐릭터, 축제 개최 등이 가능하다.

〈표 4-4〉 김천시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향토유실수종	인지성(생산성)		관광자원성	차별성	대표성	종합
	질적	양적				
호도	○	△				5
뽕은 감	△					2
은행	×				△	3
도토리	×					1
산초	×					1
수액	×					1
오미자	×					1
두릅	×					1
고사리	×					1

주) ○ = 3점, △ = 2점, × = 1점

■ 안동시

안동시의 평가대상 수종은 호도, 대추, 잣, 뽕은 감, 은행, 머루, 다래 등 10개이다. 이 중에서 은행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지만,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수종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한 향토수종 외에 타 지역과 차별화가 가능한 단호박과 같은 새로운 수종의 발굴이 필요하다.

〈표 4-5〉 안동시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향토유실수종	인지성(생산성)		관광자원성	차별성	대표성	종합
	질적	양적				
호도	×					1
대추	×					1
잣	×					1
뽕은감	△					2
은행	×				△	3
도토리	△					2
머루	×					1
다래	×					1
산수유	×					1
고사리	×					1

주) ○ = 3점, △ = 2점, × = 1점

■ 구미시

구미시의 평가대상 수종은 뽕은감 하나이다. 이 수종은 생산량이 많지 않아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인 경쟁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지역의 기후와 특성에 적합한 향토유실수종의 발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표 4-6〉 구미시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향토유실수종	인지성(생산성)		관광자원성	차별성	대표성	종합
	질적	양적				
뽕은감	×					1

주) ○ = 3점, △ = 2점, × = 1점

■ 영주시

영주시의 평가대상 수종은 은행, 머루, 다래, 밤, 호도, 잣, 산딸기 등 11개이다. 이 중에서 은행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향토유실수종으로 분석되었고, 다음으로 머루, 다래 등이 있다. 은행나무는 가로수, 공원, 정원수 등에 식재가 가능한 인기있는 수종이다. 머루와 다래는 생산량은 많지 않으나, 야생상태의 수종을 신품종으로 개량한다면 경쟁력이 높은 작목이 될 것이다.

〈표 4-7〉 영주시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향토유실수종	인지성(생산성)		관광자원성	차별성	대표성	종합
	질적	양적				
밤	×					1
호도	×					1
잣	×					1
은행	○	×			○	7
산딸기	×					1
머루	△					2
다래	△					2
산초	×					1
초피	×					1
오미자	×					1
고사리	×					1

주) ○ = 3점, △ = 2점, × = 1점

■ 영천시

영천시의 평가대상 수종은 고로쇠나무, 산수유 등 2개이다.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향토유실수종은 없으나, 최근 뽕나무와 관련된 특산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뽕나무는 뿌리에서 줄기, 잎까지 한약재로 이용된다. 이러한 수종을 적극 개발하면 지역의 새로운 향토수종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8〉 영천시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향토유실수종	인지성(생산성)		관광자원성	차별성	대표성	종합
	질적	양적				
수액(고로쇠나무)	△					2
산수유	×					2

주) ○ = 3점, △ = 2점, × = 1점

■ 상주시

상주시의 평가대상 수종은 뽕, 밤, 은행, 호도, 오미자 등 9개이다. 이 중에서 뽕은 청도군과 함께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수종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상주는 꽃감, 감식초 등 감과 관련된 특산물이 예로부터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

감과 관련한 다양한 특산물을 이용하여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향토애와 긍지를 불어넣고, 나아가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지역관광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밤, 은행, 오미자 등도 지역 특산품으로 지정하여 상품화할 경우 충분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향토유실수종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상주는 누에가루, 환, 동충하초 등 양잠 관련 특산물이 많이 있어 뽕나무를 향토수종으로 지정하면, 옛날의 명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표 4-9〉 상주시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향토유실수종	인지성(생산성)		관광자원성	차별성	대표성	종합
	질적	양적				
밤	○	×				4
호도	△	×				3
뽕은 감	○	×		○	○	10
은행	○	×				4
도토리	△					2
산딸기	×					1
산초	×					1
산수유	×					1
오미자	○	×				4

주) ○ = 3점, △ = 2점, × = 1점

■ 문경시

문경시의 평가대상 수종은 오미자, 뽕은 감, 산초, 호도, 산딸기, 머루, 산수유 등 15개이다. 이 중에서 오미자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수종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뽕은 감, 산초 등이 지역을 대표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문경시의 오미자와 산초는 각각 경북 생산량의 68.6%와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약용·식용으로 쓰인다. 산초는 독특한 향기와 열매가 있어 정원수 및 공원에 식재가 가능하다. 문경지역은 명산, 온천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향토음식, 한방차 등을 개발하면 관광상품화가 가능할 것이다.

〈표 4-10〉 문경시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향토유실수종	인지성(생산성)		관광자원성	차별성	대표성	종합
	질적	양적				
밤	×					1
호도	△					2
잣	×					1
뽕은감	×			○		4
은행	△					2
도토리	×					1
산딸기	△					2
머루	△					2
다래	×					1
산초	△	×				3
초피	×					1
산수유	△					2
오미자	○	○				6
두릅	△					2
고사리	×					1

주) ○ = 3점, △ = 2점, × = 1점

■ 경산시

경산시의 평가대상 수종은 대추, 초피, 자작나무수액 등 3개이다. 이 중에서 대추는 타 지역의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향토유실수종이며, 경북 생산량의 66.0%를 차지하는 등 집단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최근 농산물의 대외개방 압력이 가속화되어 중국 등 외국산 대추의 수입으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하지만 경산대추의 지역브랜드화를 통한 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촉진을 강화한다면 경쟁력은 지속될 것이다.

이외에도 경산지역은 포도, 복숭아, 참외 등이 유명하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이미지를 더욱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표 4-11〉 경산시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향토유실수종	인지성(생산성)		관광자원성	차별성	대표성	종합
	질적	양적				
대추	○	○		○		9
초피	△					2
수액(자작나무)	×					1

주) ○ = 3점, △ = 2점, × = 1점

■ 군위군

군위군의 평가대상 수종은 대추, 산수유, 산초, 호도, 도토리 등 7개이다. 이 중에서 대추와 산수유는 지역 경쟁력과 이미지를 높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향토수종이다. 이를 위해서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을 통한 신품종 개발과 한계농지, 구릉지 등 버려진 농업용 토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위지역은 사과, 자두 등 과수가 유명한 고장이므로, 특용과수와 병행하여 공동브랜드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12〉 군위군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향토유실수종	인지성(생산성)		관광자원성	차별성	대표성	종합
	질적	양적				
호 도	×					1
대 추	△			×		3
뽕은 감				×		1
도토리	×					1
산 초	△					2
산수유	△			×		3
두 립	×					1

주) ○ = 3점, △ = 2점, × = 1점

■ 의성군

의성군의 평가대상 수종은 산수유, 뽕은 감, 대추, 도토리, 은행, 산초, 오미자 등 10개이다. 이 중에서 산수유는 타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수종으로 분석되었다. 산수유 생산량은 경북도내 1위(28.9%)이며, 사곡면에서는 산수유 축제가 매년 3월 말경에 개최되고 있다. 단순히 산수유 축제만을 개최해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역의 전통마을, 온천 등과 연계하여 축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관광객을 유도한다면 산수유축제는 활성화될 것이다.

다음으로 뽕은 감, 대추, 도토리 등이 향토유실수종으로서 경쟁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도토리를 이용한 향토음식은 도토리 묵, 묵밥, 도토리무침, 도토리 찰편 등이 있으며, 매년 향토음식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여 관광객의 미각을 사로잡을 필요가 있다.

〈표 4-13〉 의성군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향토유실수종	인지성(생산성)		관광자원성	차별성	대표성	종합
	질적	양적				
호도	x					1
대추	x			○		4
뽕은감	△			○		5
은행	△					2
도토리	○	x				4
산초	△					2
초피	x					1
산수유	○	x	○	○		10
오미자	△					2
고사리	△					2

주) ○ = 3점, △ = 2점, x = 1점

■ 청송군

청송군의 평가대상 수종은 대추, 수액 등 2개이다. 이들 수종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청송군 일원에서 재배되는 청송토종약대추는 조상 대대로 전승되어온 토종으로서 열매가 작고 껍질이 얇으며 과육이 단단하고 향기가 독특하여 한약재 및 다류재로 널리 각광받고 있다. 특히, 토종약대추는 향토지적재산으로 등록시켜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 지정목인 소나무잎을 이용한 솔잎액기스를 특산물로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산지가 많은 지역에는 소나무가 많이 분포하므로 이를 특산물로 개발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표 4-14〉 청송군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향토유실수종	인지성(생산성)		관광자원성	차별성	대표성	종합
	질적	양적				
대추	△			○		5
수액	x					1

주) ○ = 3점, △ = 2점, x = 1점

■ 영양군

영양군의 평가대상 수종은 머루, 수액(거제수), 두릅, 고사리, 잣, 밤, 대추 등 12개이다. 이 중에서 머루는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향토수종으

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 거제수 수액, 고사리, 잣 등의 순이었다. 머루는 품종을 개량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봄철 거제수 수액을 이용한 축제 개최 등 관광 자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표 4-15〉 영양군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향토유실수종	인지성(생산성)		관광자원성	차별성	대표성	종합
	질적	양적				
밤	×					1
대추	×					1
잣	○					3
뽕은 감	×					1
산딸기	×					1
머루	○	△		○		8
다래	×					1
초피	○					3
수액(거제수나무)	△	×		○		6
산수유	×					1
두릅	×					1
고사리	○	×				4

주) ○ = 3점, △ = 2점, × = 1점

■ 영덕군

영덕군의 평가대상 수종은 초피, 잣, 뽕은 감, 산딸기, 초 등 8개이다. 이 중에서 잣과 초피가 지역향토수종 중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초피의 경우,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면 경쟁력이 확보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덕군은 해안에 접해 해산물이 풍부하며, 이들 해산물에서 나는 비린내를 없애주는 것이 바로 초피이다.

〈표 4-16〉 영덕군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향토유실수종	인지성(생산성)		관광자원성	차별성	대표성	종합
	질적	양적				
잣	○	×				4
뽕은 감				○		3
산딸기	△					2
산초	×					1
초피	○	×				4
수액	×					1
두릅	×					1
죽순	○					3

주) ○ = 3점, △ = 2점, × = 1점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 방안

따라서 풍부한 해산물과 초피를 이용한 향토음식 개발과 육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외에도 뽕은 감, 죽순, 산딸기 등도 향토수종으로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 청도군

청도군의 평가대상 수종은 뽕은 감, 밤, 대추, 초피, 수액 등 9개이다. 이 중에서 감은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향토수종으로 분석되었다. 청도반시는 청도의 대표적 특산물이며, 그 자체가 브랜드 네임으로 기능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청도군은 지역특산물인 감의 지명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감 공원 조성, 가로수 식재 등을 통해 지역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밤, 대추, 수액 등은 지역 농산물 브랜드인 ‘청도우수농산물’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17〉 청도군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향토유실수종	인지성(생산성)		관광자원성	차별성	대표성	종합
	질적	양적				
밤	○	×				4
대 추	○	×				4
잣	×					1
뽕은 감	○	○	○	○	△	14
은 행	×					1
초 피	△					2
수 액	△	×				3
두 립	×					1
고사리	×					1

주) ○ = 3점, △ = 2점, × = 1점

■ 고령군

고령군의 평가대상 향토유실수종은 밤이다. 현재 밤 생산량은 경북 전체 생산량의 9.7%이므로 타 시·군과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고 개별브랜드화도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고령군은 새로운 향토유실수종의 개발이 요망된다. 지역의 특산물인 딸기, 감자, 수박 등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작물을 위한 공동

농산물의 브랜드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표 4-18〉 고령군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향토유실수종	인지성(생산성)		관광자원성	차별성	대표성	종합
	질적	양적				
밤	△					2

주) ○ = 3점, △ = 2점, × = 1점

■ 성주군

성주군의 평가대상 수종은 밤, 초피, 수액 등 3개이다. 이 중에서 고로쇠나무·박달나무·자작나무 등에서 추출한 수액을 이용한 축제가 매년 4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이러한 축제를 활성화시킨다면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대표적으로 지역브랜드가 개발된 특산물은 성주참외이다. 성주참외는 가야산의 깨끗한 물과 낙동강주변의 비옥한 토지에서 저농약 유기농업으로 재배한 성주참외는 맛과 향이 천하일품으로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등지에 수출하여 그 명성이 해외까지 널리 알려져 있다.

〈표 4-19〉 성주군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향토유실수종	인지성(생산성)		관광자원성	차별성	대표성	종합
	질적	양적				
밤	△					2
초 피	×					1
수 액	○	×	○			7

주) ○ = 3점, △ = 2점, × = 1점

■ 칠곡군

칠곡군의 평가대상 수종은 산초, 호도, 뽕은 감, 도토리, 머루 등 7개이다. 이 중에서 산초와 호도는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향토유실수종으로 판단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호도와 산초에 대한 신품종을 개발하여 상품의 품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향토수종 외에도 칠곡군은 아카시아꽃이 유명하다. 아카시아는 산과 구릉지에서 자생하며, 목재로는 경제성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아카시아를 이용하여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 방안

양질의 꿀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역특산물인 ‘아카시아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꿀의 고장’으로서 이미지를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표 4-20〉 철곡군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향토유실수종	인지성(생산성)		관광자원성	차별성	대표성	종합
	질적	양적				
호도	○					3
뽕은 감				○		3
도토리	×					1
머루	×					1
다래	×					1
산초	○	×				4
오미자	×					1

주) ○ = 3점, △ = 2점, × = 1점

■ 예천군

예천군의 평가대상 수종은 은행, 도토리, 호도, 다래, 자사, 오미자 등 11개이다. 이 중에서 은행, 호도, 도토리, 다래 등은 향토수종으로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작목이다. 예천군에는 충효테마파크 등 다양한 주제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므로 향토수종의 집단식재를 통한 경관조성과 가로수 식재가 가능하다.

〈표 4-21〉 예천군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향토유실수종	인지성(생산성)		관광자원성	차별성	대표성	종합
	질적	양적				
밤	×					1
호도	○	×				4
잣	△					2
뽕은 감	×					1
은행	△	×			△	5
도토리	○	×				4
산딸기	×					1
머루	×					1
다래	○	×				4
산수유	×					1
오미자	△					2

주) ○ = 3점, △ = 2점, × = 1점

■ 봉화군

봉화군의 평가대상수종은 머루, 대추(약대추), 다래, 산초, 산수유, 호도, 잣, 오미자 등 12개이다. 이 중에서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향토유실수종은 머루로 분석되었다. 봉화의 머루는 타 시군에 비해 생산성, 차별성 등이 두드러지며, 특히 산머루주는 유명하다. 봉화에는 매년 다양한 축제가 있지만, 송이축제 등과 같이 계절적으로 유사한 이벤트 행사와 연계하여 머루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향토유실수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대추, 다래, 산초, 산수유 등도 향토수종으로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2〉 봉화군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향토유실수종	인지성(생산성)		관광자원성	차별성	대표성	종합
	질적	양적				
호 도	△					2
대 추	×			○		1
잣	△					2
은 행	×					1
도토리	×					1
산딸기	△					2
머 루	○	△		○		8
다 래	○	×				4
산 초	○	×				4
산수유	○	×				4
오미자	△					2
두 립	△					2

주) ○ = 3점, △ = 2점, × = 1점

■ 울진군

울진군의 평가대상 수종은 초피, 두릅, 고사리, 밤, 머루, 다래, 호도 등 11개이다. 이 중에서 초피나무는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향토수종으로 분석되었다.

울진군의 초피 생산량은 도내 생산량의 50%를 상회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특화시킨다면 더욱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두릅, 고사리 등도 향토수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 방안

중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표 4-23〉 울진군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향토유실수종	인지성(생산성)		관광자원성	차별성	대표성	종합
	질적	양적				
밤	△					2
호도	×					1
잣	×					1
뽕은감	×					1
산딸기	×					1
머루	△					2
다래	△					2
초피	○	○				6
오미자	×					1
두릅	○	×				4
고사리	△	×				3

주) ○ = 3점, △ = 2점, × = 1점

■ 울릉군

울릉군의 평가대상 수종은 독활(땅두릅) 1개이지만, 경북도내 생산량의 90%이상을 차지하여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4〉 울릉군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향토유실수종	인지성(생산성)		관광자원성	차별성	대표성	종합
	질적	양적				
땅두릅(독활)	○	○				6

주) ○ = 3점, △ = 2점, × = 1점

지금까지 경북의 23개 시·군별 향토유실수종 선정결과를 정리하면, 포항시 산딸기·수액, 경주시 잣, 김천시 호도, 영주시 은행, 상주시 감, 문경시 오미자, 경산시 대추, 의성군 산수유, 청송군 약대추, 영양군 머루, 영덕군 초피, 청도군 감, 성주군 수액, 칠곡군 산초, 예천군 도토리·다래, 봉화군 머루, 울진군 초피 등을 선정이 가능하다.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 방안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 방안

제 5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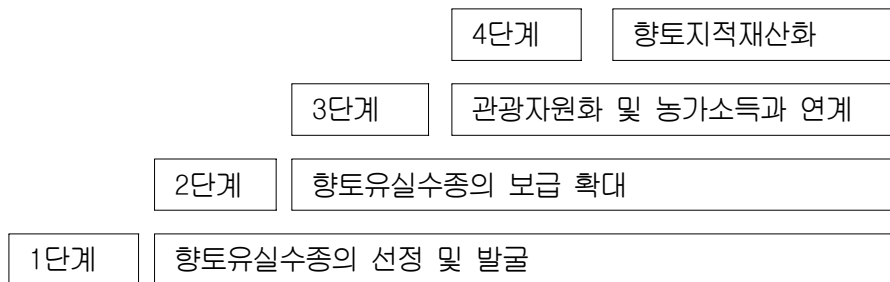


제5장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 방안

제1절 지역브랜드화를 위한 기본전략

이 연구는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므로 거시적으로 접근하였다. 첫째로 해당 시·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적합한 향토수종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선정 및 발굴된 향토수종의 보급 확대이다. 셋째로 향토수종의 대단위 식재를 통한 관광자원 및 상품으로 활용하고 농가소득과도 연계시켜야 한다. 넷째로 향토유실수종의 보존과 향토지적재산으로 등록시켜야 한다.



〈그림 5-1〉 향토유실수종의 브랜드화 추진전략

제2절 지역브랜드화의 추진 방향

1. 향토유실수종 선정 및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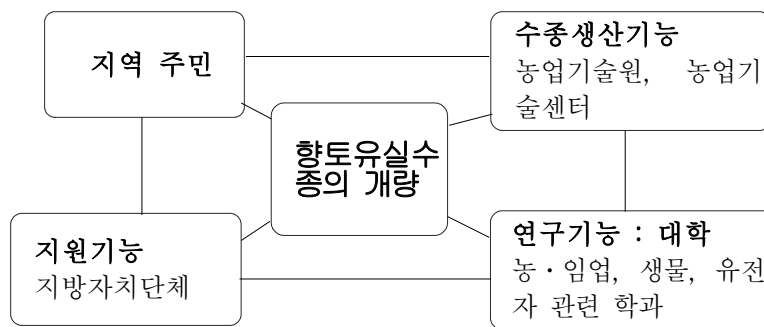
첫째는 지역의 다양한 향토유실수종 가운데서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경쟁력이 높은 수종을 선정해야 한다. 제4장에서 시·군별 향토유실수종의 선정 결과를 보면, 포항시 산딸기, 경주시 잣, 김천시 호도, 영주시 은행, 상주시 감, 문경시 오미자, 경산시 대추, 의성군 산수유, 영양군 머루, 영덕군 초피, 청도군 감, 성주군 수액수종, 칠곡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 방안

군 산초, 예천군 도토리, 봉화군 머루, 울진군 초피 등으로 나타났다. 이 수종들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거나 타 시·군과 비교우위 경쟁력을 가지는 며, 현재 개별 브랜드 또는 공동브랜드를 추진했거나 하고 있는 수종도 있다. 이외에도 앞에서 제시 되지 않은 수종 중에는 의성 홍화·작약, 안동 단호박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작목도 지역브랜드화가 가능한 수종이다.

둘째는 향토유실수종의 개량을 통한 신품종의 발굴이다. 머루, 다래 등 일반 향토 유실수종은 식생으로 볼 때 대부분 야생에서 자생한다. 이처럼 야생에서 자생하는 향토유실수종들은 생산성이 낮으므로, 품종개량을 통한 신품종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것은 향토수종의 생산성을 제고는 물론 수종자체의 브랜드화가 가능하다. 즉 지역의 특성과 이미지를 담은 신품종의 개발·육성은 지역브랜드로서 지역경쟁력을 높 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수종개량을 통한 신품종의 발굴은 해당 시·군별로 산·학·관·연이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시·군), 농업기술원(도), 농·임업 관련 학과(대학), 주민(생산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쟁력과 발전 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그림 5-2〉 향토유실수종의 수종 개량

2. 향토유실수종의 보급 확대

향토유실수종의 보급 확대와 식재를 위해서는 주민, 공공기관, 연구기관이 상호 협

력하여 추진해야 한다.

첫째, 유실수종의 보급은 해당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특성과 농가소득을 증대를 감안하여 향토유실수종의 묘목을 생산·보급시킴으로써 지역의 향토수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한다.

둘째, 향토유실수종의 보급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지역주민은 1가구 1나 무심기름, 마을단위에서는 1마을 1유실수단지 조성을 유도하여 지역수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마을 유실수단지 조성에는 마을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조성하고 수익금을 마을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향토유실수종을 통한 지역주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한다.

셋째, 마을 주변, 마을 숲, 강변, 유원지 등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한다. 마을 진입부 및 공한지에는 공간특성을 감안하여 유실수, 속성수, 특용수 등 수종을 선정하여 전체적으로 아름답고 정감 넘치는 마을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되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한다. 마찬가지로 한계농지(생산성이 낮은 농지), 태풍피해로 인해 농사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향토유실수종 식재를 적극 권장한다. 도시지역에는 가로수와 도시공원에 향토유실수를 식재하여 지역특성과 지역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

넷째, 향토유실수의 식재는 농촌지역의 노동인구의 노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그리고 가로수와 같이 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장소는 주민을 명예관리자로 선정하여 관리토로 유도하여 해당 작목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추진 방향	
주민관심 유도	1가구 1작목 심기, 1마을 1단지, 명예관리자 지정
향토수종 보급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등 묘목 생산 보급, 기술지원
식재 장소	마을 진입부, 공한지, 공원조성, 가로수, 한계농지, 태풍피해로 농업이 불가능지역, 산불지역 등
식재 방법	공공근로사업 등을 활용

〈그림 5-3〉 향토유실수종의 보급 및 확대

3. 향토유실수종의 관광자원화

첫째, 농촌의 노령인구 및 부녀자들이 관리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한다. 농촌의 노동인력의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감안하여 관리 비용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수종을 중심으로 식재한다. 마을 단위로 대규모 유실수단지를 조성하여 공동으로 관리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향토유실수를 이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특산물로 지정하여 상품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 향토유실수의 지역특산물은 외국 농산물 및 타 지역과 차별화 시키기 위하여 품질의 규격을 두고 엄격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특허청에 상표 등록만 하면 사실상 전혀 제약이 없다. 아직 브랜드에 대한 생산자(주민)나 소비자 모두의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유사브랜드가 범람하고 품질보증이 없으면 브랜드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²²⁾. 우수 브랜드에 대해서는 농산물검사소의 품질 인증제와 연계시켜 관리하도록 하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아울러 유사브랜드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다. 향토유실수종과 관련한 대표적인 특산물로 매실고추장, 감식초, 청도반시, 꽃감, 홍화씨, 안동단호박 등이 있다.

셋째, 향토유실수종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향토수종과 관련한 축제는 청도 감 축제, 의성 산수유축제, 성주 거자약수축제 등이 있다. 대부분의 지역 축제 및 이벤트는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향토유실수종과 관련하여 단순히 행사를 치른다는 개념만으로는 성공적인 이벤트의 개최 및 활성화를 보장할 수 없다. 이벤트나 축제를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관광 상품을 찾게 되는 이유나 동기를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²³⁾ 관광객이 실제 참여하여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고유의 관광브랜드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역의 결속을 다지고 경제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지역에서 축제 개최가 가능한 향토유실수종은 김천 호도, 영주 은행, 경산 대추, 봉화 머루 등이 있다.

지금까지 향토유실수종의 선정 및 발굴, 보급 확대, 관광자원화 활용 등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5-1>과 같다.

22) 농정연구포럼, 축산물 브랜드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농정포럼연구」 제56회 정기월례 세미나 결과보고서, 1998.2., p.40.

23) 이태희, 「축제 브랜드 경영론」, 대왕사, 2003, p.24.

〈표 5-1〉 향토유실수종의 활용 방향

구 분	향토유실수종			활용 방향
	1위	2위	3위	
포항시	산딸기	수액		특화주 개발, 지역축제 개최 가능
경주시	잣	죽순	두릅, 고사리	지역특산물로 지정, 향토음식 개발 가능
김천시	호도			공원, 캐릭터, 축제 개최 등이 가능
안동시				새로운 향토유실수종 발굴(예: 단호박)
구미시				새로운 향토수종 발굴
영주시	은행			가로수, 공원조성 등 지역이미지 제고 가능
영천시				새로운 향토유실수종 발굴(예: 뽕나무)
상주시	감	밤, 은행 산수유		축제 개최, 꽃감, 감식초 등 특산물
문경시	오미자	감		향토음식, 한방관련 차 개발 가능
경산시	대추			대추 등 홍보 판매 촉진, 이벤트 개최
군위군	대추, 산수유	산초		공동브랜드 개발(사과, 자두 등 지역특산물)
의성군	산수유	감	대추, 도토리	산수유 축제의 활성화(지역관광자원과 연계)
청송군	약대추			향토지적재산화
영양군	머루	수액	두릅, 고사리	머루의 품종개량, 약수축제 향토음식 개발
영덕군	잣, 초피			향토음식 개발(해산물과 연계)
청도군	감	밤, 대추		가로수, 공원조성, 축제활성화
고령군	밤			지역특산물인 딸기, 감자, 수박 등과 브랜드 연계
성주군	수액			거자약수 축제의 활성화
칠곡군	산초			향토음식 개발, 신규수종(아카시아)
예천군	은행	호도, 도토리, 다래		군에서 추진 중인 테마파크 등 관광지에 집 단식재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
봉화군	머루	대추, 다래 산초, 산수유		머루 품종개량으로 주민소득 증대 약대추의 향토지적재산화
울진군	초피	두릅		향토음식 개발 및 한방자원화
울릉군	땅두릅			향토음식 개발

주) 표에서 제시된 순위는 해당 시·군 자체 내에서 평가된 것임.

4. 향토지적재산화 및 종(種)의 보존

향토유실수종의 브랜드화를 추진은 경쟁력이 있는 수종은 개별 또는 공동브랜드화가 가능하다. 지역의 향토수종을 이용한 브랜드네임, 캐릭터, 브랜드의 이미지화, 시·군목 지정 등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다. 따라서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생산, 판매 등 시너지효과를 높여야 한다.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 방안

‘향토지적재산’은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기술이나 문화, 자연생태적 자산을 일컫는다. 특히 지역성과 전통성을 갖춘 재산으로 현대적 의미에서 향토지적재산은 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큰 것이다.

경북에는 청도반시, 의성홍화·산수유, 봉화머루 등이 지역특성과 정통성을 갖춘 향토유실수이다. 지역브랜드 및 상징물의 향토지적재산화를 통한 지역개발의 활용사례를 살펴보면, 고유상표 농·특산물에는 나주배, 영광굴비, 이천쌀, 음성고추 등, 지역의 특성 및 상징물에는 초정약수(청원), 정이품소나무(보은), 박달제(제천), 남해대교(남해) 등, 품질의 차별화한 경우는 술먹인 한우, 양파먹인 한우(강진) 등이 있다. 지역축제에는 나비축제(함평), 반딧불이축제(양평, 무주) 등이 있다. 또한 향토지적재산화에 대한 관련정책은 행정자치부가 1997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향토지적재산의 조사 발굴 및 사업화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종(種)의 자원화시대에 대비하여야 한다. 지역의 우수한 향토수종은 적극적으로 개발 및 발굴하며, 야생에서 자생하는 지역토착수종은 애호가들에 의한 남획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시점에서 경제성이 없거나 낮은 수종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종의 자원화시대에 대비하여 고유의 향토수종을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해야 한다.

〈표 5-2〉 향토지적재산의 유형

유형의 향토지적재산	무형의 향토지적재산	향토지적재산의 소재
식생활분야 의생활분야 주생활분야 놀이, 여가생활분야 민간의료분야 기타 생활분야	전래풍속 민간설화 민요 지역축제	토종식물 토종동물 자연생태환경(경관)

자료 :/www.terrami.org/hyangto/intro2.html

결론 및 정책 제언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의 향토유실수종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 시·군별 비교우위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및 활용, 지역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째, 시·군별 향토유실수의 생산 실태를 보면, 포항시는 산딸기·나무 수액(고로쇠나무 수액) 등, 경주시는 잣·고사리·죽순 등, 김천시는 호도, 영주시는 은행, 문경시는 오미자, 경산시는 대추, 의성군은 산수유·도토리, 영양군은 거자수, 청도군은 뽕은 감·밤, 성주군은 박달나무 수액, 봉화군은 머루·다래·산초 등, 울진군은 초피, 울릉군은 땅두릅 등이 도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에서 포항시 산딸기·나무 수액, 경주시 죽순, 문경시 오미자, 청도군 뽕은 감, 울진군 초피, 울릉군 땅두릅 등은 생산량에 있어서 타시·군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향토유실수종과 지역상징물과 관계를 살펴보면, ① 향토유실수종 및 지역농·특산물을 주제로 한 상징물(캐릭터, 브랜드)을 사용하는 시·군의 비율이 너무 낮다. 아직까지 지역경쟁력을 높이는데 브랜드 및 캐릭터의 인식이 낮아 상징물의 개발이 안 된 시·군이 많다. ② 시·군의 슬로건·미래상은 지역의 특성을 알리기 보다는 막연한 이미지를 설정한 지역이 많다. 예를 들면, ‘가장 살고 싶은~’, ‘선비의 고장~’, ‘전원도시~’, ‘전통과 문화의 고장~’ 등이다. ③ 시·군을 나타내는 나무는 주로 은행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감나무 등으로 나타나, 이는 중복으로 사용하여 지역특성을 차별화 시키는데 효과가 낮다. ④ 향토유실수종과 관련한 농·특산물의 개발과 지정비율이 낮고, 향토유실수종과 관련한 축제, 이벤트, 향토음식은 거의 없다.

셋째, 시·군별 향토유실수종의 선정 및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포항시 산딸기, 김천시 호도, 영주시 은행, 상주시 감, 문경시 오미자, 경산시 대추, 의성군 산수유, 영덕군 초피, 칠곡군 산초, 봉화군 머루 등으로 분석되었다. 그 활용방안으로는 특화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 방안

(전통) 주(酒) 개발, 지역특산물 지정, 향토음식 개발, 주제공원 조성, 캐릭터 개발, 축제 및 이벤트 개최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넷째, 지역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① 지역특성에 적합한 향토수종의 선정·발굴 및 관련 수종의 품종의 개량이다. ② 선정 및 개량된 향토유실수종의 보급과 대단위 식재이다. ③ 이를 통한 농가 및 마을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제, 특산물 등 관광자원화 하여야 한다. ④ 향토유실수종의 개별·공동브랜드화를 추진하고, 향토지적재산으로 등록시켜 관련 수종을 지속적으로 보존한다.

이러한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제언을 하면, 첫째로 향토유실수종의 신품종 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북도의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시·군 간의 정보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농·임산물의 품질을 인정해 주는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 또는 대행기관이 필요하다. 향토유실수종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셋째로 향토유실수종의 보존과 향토지적재산화를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 시급히 추진시켜야 할 것이다. 유실수종에 대한 향토지적재산의 조사와 발굴은 향후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 제고에 토대가 될 것이다.

향토유실수종은 지역 고유의 자원이므로 지역주민과 오랜 세월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러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경기개발연구원(2001), 『경기도내 지역·산업브랜드 제고를 통한 특화산업 육성방안 기초 연구』.
- 농정연구포럼(1998), 『제56회 정기월례세미나 결과보고서』, ‘축산물 브랜드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 동아일보, 2003. 4. 27.
- 산림청(2003.7), 임업통계자료 참고.
- 상표법 제2조 1항.
- 신현암 외 2명, 『브랜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삼성경제연구소, p.59.
- 이태희(2003), 『축제 브랜드 경영론』, 대왕사.
- 조선일보, 2002. 10. 3
- D.A 에이커(1992), 『브랜드 자산의 관리』,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연구회 옮김, 나남출판사.
- Phillip H. Kotler(1994), Marketing Management: Analysis, Planning and Control, 8thed., Englewood Cliffs, NJ: prntice-Hall, Inc.

-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홈페이지(www.rda.go.kr/)
-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www.foa.go.kr), 2002.
- 임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fri.go.kr)
- 향토음식연구회(www2.rda.go.kr/food/korean/)
- www.gingko.co.kr
- <http://myhome.hanafos.com>
- ziikii@metabranding.com
- www.kwfa.org/wildflower.php
- <http://210.104.18.1>
- www.terrami.org

표차레 · 그림차레



표 차례

<표 1-1> 연구의 구성과 체계6

<표 2-1> 향토유실수종의 유형별 구분12

<표 2-2> 밤, 호도, 대추 생산 현황22

<표 2-3> 잣, 뽕은 감, 은행 생산 현황23

<표 2-4> 도토리, 산딸기, 머루 생산 현황24

<표 2-5> 다래, 산초, 초피 생산 현황25

<표 2-6> 산수유, 오미자, 독활 생산 현황26

<표 2-7> 시군별 향토 수액수종 생산 현황27

<표 2-8> 시군별 기타 향토수종 생산현황28

<표 2-9> 시군별 향토수종의 생산 실태29

<표 3-1> 브랜드의 구성요소35

<표 3-2> 지역별 캐릭터 및 브랜드 현황38

<표 3-3> 시군별 슬로건39

<표 3-4> 시군별 지정 수목 및 꽃40

<표 3-5> 시군별 농특산물 현황41

<표 3-6> 지역 축제 및 이벤트 현황43

<표 3-7> 시군별 향토음식 현황45

<표 4-1> 지역브랜드화를 위한 향토유실수종 선정 지표54

<표 4-2> 포항시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55

<표 4-3> 경주시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55

<표 4-4> 김천시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56

<표 4-5> 안동시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57

<표 4-6> 구미시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57

<표 4-7> 영주시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58

표 차례

<표 4-8> 영천시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58
<표 4-9> 상주시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59
<표 4-10> 문경시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60
<표 4-11> 경산시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60
<표 4-12> 군위군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61
<표 4-13> 의성군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62
<표 4-14> 청송군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62
<표 4-15> 영양군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63
<표 4-16> 영덕군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63
<표 4-17> 청도군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64
<표 4-18> 고령군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65
<표 4-19> 성주군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65
<표 4-20> 칠곡군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66
<표 4-21> 예천군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66
<표 4-22> 봉화군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67
<표 4-23> 울진군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68
<표 4-24> 울릉군의 향토유실수종 선정 평가표	68
<표 5-1> 향토유실수종의 활용 방향	75
<표 5-2> 향토지적재산의 유형	76

그림 차례

<그림 2-1> 밤	12
<그림 2-2> 호도	13
<그림 2-3> 대추	14
<그림 2-4> 잣나무	14
<그림 2-5> 감	15
<그림 2-6> 은행	16
<그림 2-7> 참나무	16
<그림 2-8> 산딸기	17
<그림 2-9> 머루	17
<그림 2-10> 다래	18
<그림 2-11> 산초	18
<그림 2-12> 초피나무	19
<그림 2-13> 산수유	19
<그림 2-14> 오미자	20
<그림 2-15> 고로쇠나무	20
<그림 2-16> 두릅나무 순	21
<그림 3-1> 천안의 특산품 호도	46
<그림 3-2> 공주의 특산물 밤	46
<그림 3-3> 가평의 특산물 잣	46
<그림 3-4> 고창의 특산물 복분자주	47
<그림 5-1> 향토유실수종의 브랜드화 추진전략	71
<그림 5-2> 향토유실수종의 수종 개량	72
<그림 5-3> 향토유실수종의 보급 및 확대	73

지역별 상징물



지역별 상징물

지 역	심벌마크	캐릭터	농특산물 브랜드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금동이 금송이 새코미 달코미	
안동시		 안동양반, 안동선비	시지정 특산물 공동브랜드
구미시		 토미	금오산

항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 방안

사·군별	심벌마크	캐릭터	농·특산물 브랜드
영주시		 선비촌 선돌이	
영천시			
상주시		 감돌이 감순이	
문경시			
경산시		 베푸리	
군위군		 장군이	
의성군	 의성군	 의동이	

사군별	심벌마크	캐릭터	농특산물 브랜드
청송군		 군마스코트  솔밭배, 솔초롱	
영양군		 달나라, 해도령  남이장군	 일월명품  영양 현우
영덕군		 카니와 토끼, 영복이와 덕송이  대계랑, 신돌석 장군	
청도군			
고령군		 가야들이	

항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 방안

시·군·별	심벌마크	캐릭터	농·특산물 브랜드
성주군		 참돌이	
칠곡군		 호이	
예천군		 효동이, 효심이	
봉화군			
울진군		 피오	
울릉군			

· 연구자 소개 ·

김 중 표 (金 重 杓)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현)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위촉연구원 역임
-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수료

주요 연구실적

-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수립 연구(참여)
- 제23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참여)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시장의 연중 활용방안
- 중부내륙광역권 경북지역 친환경적 지역개발 방향

외 다수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 방안

2003년 12월 26일 인쇄

2003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윤 식

발행처 **대구경북개발연구원**

(706-7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TEL. (053) 749-5010, 5020, 5030, 5060, 5070

FAX. (053) 749-5098

인 쇄 명인출판사(☎ 422-5558)

< 비 매 품 >

이 보고서의 내용이 반드시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